



성도의 벗 12
1970



영감의 메시지

하워드 더블류 헌터
(12사도 정원회)

저는 대부분의 사람이 엄격한 윤리 조항을 따른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훌륭한 윤리 규범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베푸는 동시에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생활을 하려 합니다. 참으로 권장할만 하고 모든 사람이 그런

도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진실한 마음을 품을 때 오늘날의 복잡다단한 사회에서의 관계도 호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리는 의로운 통치와 공명정대한 법률 제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덕, 사회 및 경제 조직의 기본입니다.

윤리의 엄격한 조항에 따를 때 사회는 완전의 상태에 이를 것이며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리만으로 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윤리가 책임과 행위의 필요조건을 달성하기에 충분합니다. 내세를 믿고 있으면서도 윤리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명을 지키지 않고도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윤리와 종교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윤리에 바탕을 둔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과 참다운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윤리가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참다운 종교는 윤리가 지니는 진리를 포함하며 이를 훨씬 초월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종교란 높으신 분의 존재를 믿는 신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경전에 수록된 주님의 말씀에 믿는 신앙에 기초를 둔 종교입니다. 종교는 이론을 초월합니다. 이는 신의 신념 이상의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입니다. 제임스 이. 탈메지 박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론적인 학문에 정통한 사람으로서도 종교적인 품성, 심지어는 윤리적인 품성이 결여된 경우도 있다. 신학이 이론이라면 종교는 실천이다. 신학이 충언이라면 종교는 모범이다.”(신앙개조의 연구 5페이지)

기독교인에 있어서 참다운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성실한 신앙과 우리의 행위와 행동—곧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0년 12월 1일

통권 제65호

발행인: 서 헌 보

편집인: 홍 무 광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우편번호 110

인쇄소: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50원

1년 구독료(송료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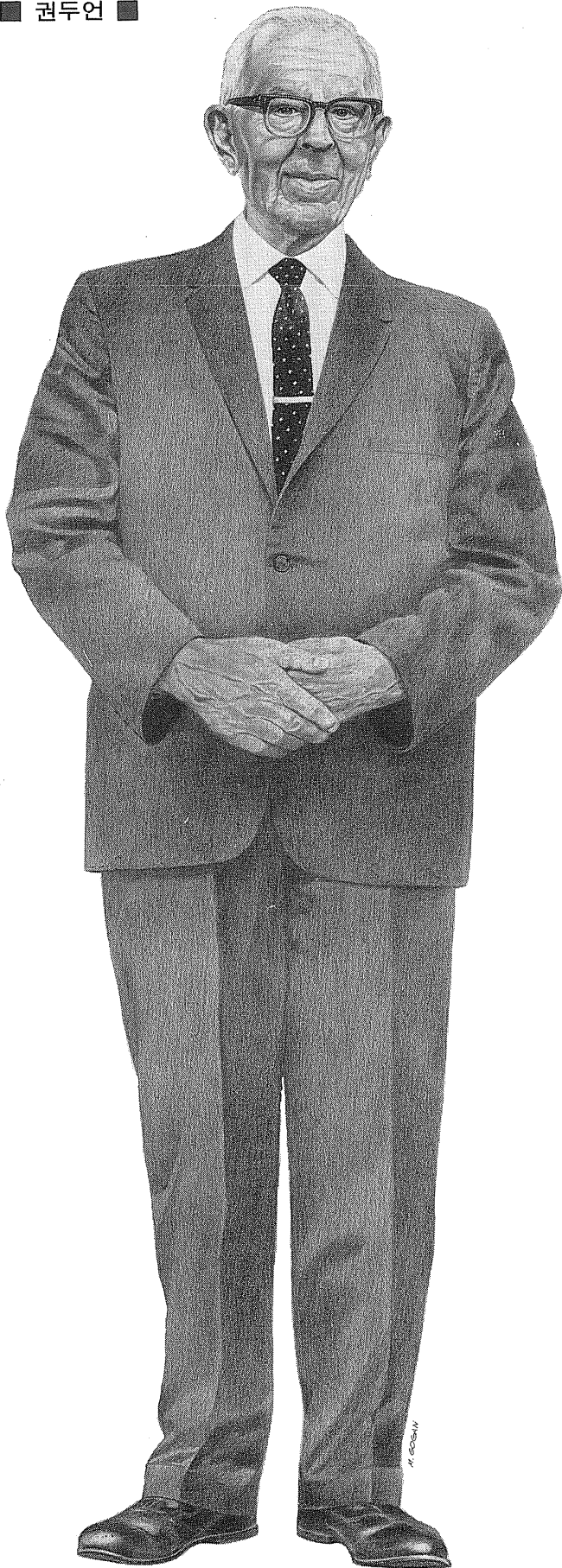
제 6 권 제 12 호

순 서

1970년 12월 호

■ 권두언 : 주님은 약속하셨다	조셉 필딩 스미스.....	1
하나님은 화평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3
캐밀라 에이링 킴블—놀라운 여성	마벨 존스 개봇.....	4
어머니 여러분! 그곳에 계십시오	리차드 엘. 이반스.....	7
들 속에 있는 상	폴 제임스 토스카노.....	9
복천년	알빈 아아르, 다이어.....	11
놀라운 약속	마거리 에스, 캐논.....	15
아마존 강변의 성탄 전야	헤이즐 스완슨.....	16
■ 관리 감독단 페이지: 배움	존 에이치, 반텐버그.....	19
장애물을 제거할	매리온 데이, 행크스.....	20
그는 요셉으로부터 목수일을 배웠다	에스. 딜위스 영.....	21
나 자신이 귀한 선물	랜디 스웬슨.....	22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	엘리노 노울스.....	24
■ 주일학교	25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윌리엄 엠. 테일.....	26
오늘날의 당신을 위하여	데이비드 오, 맥케이.....	28
■ 선교부장단 및 지방부장단의 성탄인사	30
■ 내외 소식	32
■ 진리의 말씀: 나는 나의 하루를 허비하지 않으리니	리차드 엘. 이반스...표4	

표지설명: 뉴욕 세계 박람회
물문관에 사용된 바 있는 십
이사도를 성임하시는 그리스
도의 그림은 이제 유명하게
되었는데 이 그림을 그린 해
리 앤더슨은 그후 솔트 레이
크 시에 있는 신전 광장의
방문자 센터에 전시될 여덟
폭의 그림을 그리도록 위촉
을 받았다. 이들 그림에는 경
륜의 시대에 살았던 예언자
들의 생애에서 중요한 일이
그려져 있으며 이 중에 하나
가 이사야 7장 14절과 9장 6
—7절에 관한 것이다. 이 그
림은 이사야가 두 증인이 보
는 앞에서 기록하라는 명을
받은대로 주님께서 그와 아
하스 왕에게 전해주시는 평강
의 왕에 관한 기쁜 소식을
기록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
다. 이달의 표지는 이 그림
의 일부이다.



주님은 약속하셨다

대관장 죠셉 필딩 스미스

●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선택한 절기입니다. 확실히 우리 만형의 육체적인 탄생은 온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신은 모든 죄에서 벗어난 분이었지만 그는—하나님의 아들은—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 주시기 위하여 이 지상에 오셨으며 그분은 모든 죄에서 벗어난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고 말하거나 그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 스스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무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는 아담의 시대로부터 오늘 날에 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져 왔고 성스러운 경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사자들이 인간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들을 모두 인간의 마음에 심어 주고 또

알려주기 위하여 지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러한 모든 계명과 함께 우리는 지존자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와 그 앞에 도덕적인 행위자로 살아갈 책임을 부여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에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신에 대한 신앙, 우리는 그분들은 하늘을 관리하시는 권능을 갖으신 분이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또 정의이시며 진리이시며 능자로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앙개조 제1조)

2. 우리는 아담의 범법과 회개만 한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는 그리스도를 이세상의 구세주로 믿으며 그분의 무한하신 속죄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앙개조 2조3조).

3.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겠다는 의지로 가득찬 마음을 그분께 바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4.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의 의식을 집행하기 위하여 성스러운 권능을 받은 자에게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5. 우리는 권능을 갖고 있는 자로부터 그의 손을 우리의 머리 위에 얹고 전해주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는 진리와 예언의 영 즉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구원은 이와 같은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 계명을 지킬때에 약속된 축복은 모든 인류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구세주만 믿고 의지한다면 가혹하거나 무겁기만한 짐이 아니며 약한 자 중의 약한 자도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지혜와 힘과 은혜와 은총이 때가 찬 완전한 날이 그들에게 이를때까지 증가될 것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통하여 창조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권능과 영토와(교성 132:19 참조)힘이 그들에게 주어 질 것이며 그들 만이 이 위대한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것! 한정된 인간은 단지 그 약속의 일부만을 겨우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

생하시던 날 들에 있었던 겸손한 목자들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를 두루 비취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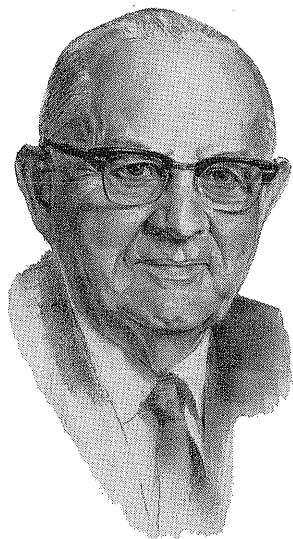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누가 2:9-11·13-15)

이 약속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부터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 2:2)고 말한 박사들 처럼 되어야 합니다.

기쁜 이때를 맞이하여 저는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 주신 감사함을 온세상 만방에 전하는 바입니다. 참으로 경사로운 오늘을 축하하며 여러분이 그분은 섬기려고 노력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15절

스펜서 더블류. 킴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 화평은 지상에서 물려났는가? 안정이란 거의 잊혀진 과거에 불과한가? 법과 명령만이 간직할 추억이란 말인가? 화평은 어디에 있는가?

그처럼 귀한 화평을 어떻게 했는가? 주님께서는 이를 영혼한 소유와 축복으로 간직하라고 주셨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¹고 하셨다. 그분은 공식을 만드셨고 여러 요소를 혼합하여 이를 대가없이 주셨던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는 한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이다. 떨어져 나가거나 잃어버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처럼 관대하게 그리고 값없이 주신 화평은 어디로 갔는가? 세상 일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중에 잃었는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주님은 우리가 화평을 위한 노력을 포기할 때 고통의 집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아셨던 것이다. 둘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할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세상은 고통을 하려는 화평을 가져온다.

“두려워하지도 말라.”

화평이 즐거움을 안겨다 주는 데도 고난을 택할 것인가? 이웃 여행자를 보고도 문을 굳게 잠글 것인가? 이웃을 외면한 도피가 안전할까? 아이들이 큰소리로 웃고 노래할 수 있으며 모든 가족이 갈등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까?

안전은 공포의 쫓김을 당하여야만 하는가? 경찰의 수는 늘어야만

하며 악인은 죄를 짓고도 보호받으며 선한 피해자는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한단 말인가!

흉악범이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미쳐 날뛰는 집에서 죄없는 사람이 변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은 어떠한 종류인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군수품, 대포, 폭탄, 방공호가 아니며 감옥, 경관, 재판, 법률가가 아닌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져야 할 종류이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²고 하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를 닮아 그의 계명에 좇아 살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 요한복음 14:27

2 요한복음 16:33

이것의 바로 주님이 나의 평안이라고 하신 화평의 뜻인 것이다.

“화평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어보기 바란다. 본인은 과거에 이 화평의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다.

이 아름다운 독일 여자는 스위스 신전 의복 보관소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신축된 신전에서 거행된 첫 번째 모임에서 사용한 옷을 반납하고 있었다. 그녀는 중키였고 상당히 푼위 있어 보여 인상적이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독일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유혈과 공포로 점철된 전쟁을 경험하였다. 머리카락은 채 늙기도 전에, 40줄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희게 변하였다. 육체적인 쇠퇴는 눈에 두드러졌고 얼굴의 주름살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잉크인양 정신적인 고통, 분노, 슬픔을 말해 주고 있었다.

공습을 알리는 나팔 소리나 나치하의 독일 군인이 울려대는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어두운 방공호로 기어 들어갔다. 갖은 어려움을 피하여 시장엘 가야만 물고기 한 파운드를 살 수 있었으며 백만 마르크의 돈을 주고 사는 빵도 몇 시간씩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전쟁의 살육장으로 보내면서 일루의 희망과 두려움에 가득찬 어조로 작별을 고했다. 그녀는 폭격기가 죽음의 곡예를 할 때 무서움에 몸을 움추렸다. 그녀는 한 공격에서 다른 공격 사이의 끝없는 시간을 헤아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의 편지나 소식을 끝없이 기다렸으나 아무 소용도 없었다. 하루는 주일로, 주일은 달로 바뀌었으며 이제는 기약할 수 없는 햇수로 변하고 말았다. 번민이나 걱정이 소용없다고 체념하였을 때 휴전은 다가왔다. 부상자, 실종자, 전사자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놀라우게도 남편의 이

름이 전사자 명단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남편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으나 이제 행어나 하는 바램은 아예 없어졌던 것이다. 이제 과부인 것이다. 싫든 좋든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앞으로 피치 못할 일을 손수 맞아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홀로 살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 날의 시련과 공포, 고통에서 그녀를 건져준 것은 복음뿐이었다. 약속된 남편과의 재회를 위하여 살아야 했다. 신전이 완공될 때를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녀는 베른의 새로운 신전에 있었다. 얼마전 그녀의 지부에서 만났는데 아주 희망에 차 있었다. 나는 그녀가 모든 것을 달성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대리 사업을 수행하여 사랑하는 남편에 인봉되었던 것이다. 얼굴의 주름도 부드러워졌다.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그녀의 음성은 사뭇 부드러웠다.

“전쟁이 또 올 것이라면 오라고 하죠. 폭탄은 터져 파괴하라고 하죠. 배급 행렬이 길어지라고 하죠. 무너진 벽도 쌓으라고 하죠. 대포도 쏘라고 하죠. 죽음더러 가까이 오라고 하죠. 올 것은 와야죠. 저는 준비되었으니까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동반자와 함께 영원히 인봉되었어요. 이제는 무엇이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아주 화평스러운 상태입니다.”

위엄과 자랑스러움에 싸여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나는 화평스런 그녀를 보았던 것이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롬 10: 15, 14: 17) ○

캐밀라 에이링 킴볼

놀라운 여성

마벨 존스 개본

임프르브먼트 이라 편집위원

위: 좌로부터 네번째가 캐밀라 1910년 그의 친구들과 함께

중앙: 유타주 핑클리의 밀라드 아카데미 가정 경제반에서의 캐밀라 에이링.

아래: 다섯 자녀와 첫손녀와 함께한 킴볼사도 내외분



● 캐밀라 에이링 킴볼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제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생은 자녀로 싸여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 슬픔, 성공, 실패가 곧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중요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저는 손주나 사촌들이 떨어져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가정은 보다 유동적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보다는 밀접한 유대를 가졌습니다. 우리들은 친구는 물론 친척과도 빈번한 관계를 가져야 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알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는 도리가 없는 것이죠.”

캐밀라의 유년시절은 다른 아이와 달라 사촌, 조부모님, 부모님, 그리고 모



한살 때의
캐밀라
멕시코의
콜로니아 주아레즈

캐밀라와
그의 남동생 헨리
여동생 마리

결혼할 당시의
김불사도 내외

든 가족과 함께 참으로 친숙하고 그리하여 잊지 못할 환경으로 가득찼다. 그녀는 멕시코 치후아후아, 콜로니아 주아레즈에서 에드워드 크리스찬 에어링과 캐롤라인 롬니 에어링의 자녀로 태어나 그곳 얼음이 언 피에드라스 베르데 강에서 칠패를 받았다. 1910년경까지 가족은 적은 콜로니아 주아레즈 마을을 나누고 있던 강의 동쪽 붉은 벽돌 집에 살고 있었다. 캐밀라는 와드 예배당이던 학교엘 다녔다. 마을의 시계 구실을 한 교회 종소리는 아이들을 학교로 불렀다. (요즈음도 교회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당시의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고 술회하고 있다.)

피에드라스 베르데 강에는 흔들 다리가 있었는데 캐밀라는 학교가 파한 후에는 건너가 강 서쪽에 살고있던 어거

스타 아이빈스와 놀고는 하였다. 그때 해지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온다는 규칙이 있었다. 서쪽편에 있는 아이빈스의 집은 해에 일찍 가리었다. 캐밀라가 있는 힘을 다하여 흔들 다리를 건너가면 역시 해지기 전에 자기 집에 도착할 수가 있다. 때로는 어물거리고 있다가 어머니로부터 따끔한 벌을 받기도 했다.

어머니 캐롤라인 롬니는 마일즈 파크 롬니와 캐더린 코담 롬니의 딸이었다. 성 조지에서 태어났으나 후에는 아리조나주 성 존스로 가족과 함께 이사하였고 아버지는 이곳에서 신문 오리온 이여라를 발간하였다. 그후에 그들은 멕시코로 이사하였다. 캐밀라의 아버지 에드워드 크리스찬 에어링은 1862년 유타주 성 조지에 있을 때 유타주 디시 읍을 정리하라는 부름을 받은 바 있는 헨리 에

어링의 아들이었다. 1887년 조부 헨리 에어링은 가족을 이끌고 멕시코로 이사하였다.

어느날 마일즈 롬니 감독은 명절 파티에 손님으로 젊은 에드워드 에어링을 멕시코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캐롤라인과 어머니는 정원에서 꽃을 따고 있었다. 첫눈에 캐롤라인 롬니와 에드워드 에어링 사이에서 캐밀라의 미래의 생이 탄생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캐밀라라는 이름은 “희생에의 참여”를 뜻하는 것으로 이 훌륭한 여성의 생애가 날날이 나타났을 때 참다운 의미를 더하여 주었던 것이다.

캐롤라인과 에드워드 에어링은 캐밀라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유년 시절을 만들어 주었다. 콜로니아 주아레즈에서는 가족이 하나가 되어 소풍, 파티, 세익

스피어 극, 주례 무도회, 학예회 등에 깊은 관심을 쏟았다.

김볼 자매는 이렇게 믿고 있다. “마차나 툼툼거리는 자동차 시대에 젓트기 시대에까지 살다보니 이로운 절도 많았죠. 우리는 비교를 통하여 감사의 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이 자급자족하였고 적은 마을이 그대로 큰 가정이었던 그 때에 맛본 유년 시절을 생각하면서 희열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연극, 칸타타 등을 시작하기도 하였고 특히 자기들 손으로 만든 연극은 가장 재미있었다는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롬니 할아버지는 훌륭한 셰익스피어 연극 배우였어요.”라고 회상하고 있다. 재능을 개발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일하는 가운데 더 말할 나위 없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같은 먼 식민지 땅에서의 가까운 유대는 멕시코 내란으로 조각이 나고 말았다. 캐밀라는 그때의 제릴라들의 횡포를 잊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시가지로 몰려들어 상점에서 원하는 물건을 그대로 약탈해 갔으며 목장을 절거하여 역시 마음대로 죽여버리고는 했다. 1912년 여름이 되자 성도들은 가정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가정과 그속의 화평을 버린간 아무 준비도 없이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피로운 순간이었어요.”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떠나기 전날 검은 딸기가 담긴 독을 현관 마루 밑에 숨겨두었다. 어른들은 한 2, 3주일이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캐밀라는 집에서 제일 위로 17살이었다. 그녀는 여자와 어린 아이로 들끓는 피난민 집단 수용소, 무더위, 정부가 지급하여 준 배급 등의 엘 파소에서 보낸 여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적십자사에서 매일 배급을 날라다 주었는데

마른 오트밀과 생선 통졸입에 진저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10월이 되자 많은 소유물을 남겨둔 채로 남자들은 멕시코를 떠났다.

멕시코 정부가 마련한 법으로 후견인이 될만한 친구나 친척이 있는 물몬에게는 합중국 의 어느 주라도 갈 수 있는 기차 무임승차권이 주어졌다. 캐밀라는 기차로 유타주 푸로보에 도착하여 삼촌 칼 에어링과 함께 살며 부리감 영 대학 부속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그녀는 쥘리엥 스테이크 아카데미에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수료하였었다.)

김볼 자매는 푸로보에서의 초기 학교 생활을 회상하면서 미소를 짓는다. 치마의 길이가 한창 바뀌고 있던 때였다. 그녀는 새로 지은 양복 두벌과 오바하나를 가지고 엘 파소를 떠났는데 길이가 아주 짧은 것이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거의 발목에까지 닿는 옷을 입고 다녔다. 성탄절이 가까워서야 어머니께서 천을 구해다가 당시의 유행에 맞는 치마를 만들 수가 있었으나 오바하는 아직도 짧았다. 그러나 입고 다녀야만 했다. “이제 생각하니 우습지만 17살 난 아이에게는 비극이었어요.”라고 말한다.

긴장과 적응의 시기였다. 캐밀라는 하숙비, 방세, 그리고 학교에 드는 돈을 벌기 위하여 오랜 시간을 일했다. 이전에 맛보았던 행복하고 안전했던 시절은 가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받게 되었지만 결국 행복한 삶이란 어떤 연령에 속한 사람에게거나 북소리나 나팔 소리에 맞추어 한꺼번에 오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해를 거듭함에 따라 서서히 조금씩 오며 드디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행복한 삶은 발견하는 건 아닙니다. 만드느 것입니다”.

캐밀라는 스스로의 행복한 생활을 만들기 시작했다. 1914년 6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가정 경제 전공의 대학 과정을 이수하여 교회 학원에서 교편을 잡을 수 있는 자격증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녀는 여름을 바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보내면서 샌프란시스코주의 세계 박람회를 관람하였다. 후에 아리조나 대학의 길라 아카데미와 유타주 헝클리의 밀라드 아카데미에서 교편을 잡았다. 또한 그녀는 유타주 로건에서 1년을 보내면서 유타주립 농과대학(현 유타 주립대학)을 다녔다. 1917년 11월 16일 스펜서 떠블류 김볼과 결혼하였다.

김볼 부부는 아리조나에 가정을 꾸미고 네 자녀를 두게 되었다. 김볼 장로는 로타리 클럽의 지역 책임자로 선임되었는데 이는 그들에게 훌륭한 여행을 많이 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1937년 구라파 13개국 순방이라든가 팔레스타인을 세번이나 방문한 것이 그 일부이다. 1943년 아리조나주 세포드로 이사하였는데 그때 “우리들 생의 계획을 완전히 바꾼 운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스펜서는 교회 12사도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김볼 일가는 쉘트레이크시로 이사하여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김볼 자매는 아주 바쁜, 성공한, 대중의 신망을 받으며 교회에 봉사하는 남편의 충실한 조력자였다. 그녀도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이든 참으로 지혜롭고 영적인 공헌을 아끼지 않았다. 김볼 십이사도 회장과 김볼 자매가 1958년 6월 위대한 봉사자 상과 황금의 이삭줍기 상을 받았을 때 캐밀라의 공적을 이런 말로 표현했다. “다른 사람들, 특히 모든 사람으로부터 잊혀지기 쉬운 사람을 위한 봉사에 지칠 줄을 모르며 그녀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빛

을 받았습니다. 그녀와 사귄 기회를 가졌던 사람은 실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유쾌가 드문 이론과 겸손의 균형을 간직하고 있으며 아울러 위대하고 비범한 사람을 만들어 주는 인내와 우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킴볼 자매는 자신의 재능과 학문적인 훈련을 기꺼운 마음으로 나누었다. 그녀는 광범위한 봉사 활동을 통하여 가정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녀의 서적에 대한 지식과 폭넓은 독서는 도서관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동부 아리조나주 여성 연합회의 회장으로서 동료 회원에게 하나의 영적인 지도자의 기량을 다했다. 그녀는 암협회에서 일했으며 텔레비전의 교육 프로에 나가 고전 토론 구름을 대표하기도 했다.

첫째가는 취미는 독서이며(그녀는 낭송이나 연극 대사 낭독자로 이름이 있다.) 둘째는 바느질이다. (레이스와 프

제질 부분에서 주가 베푸는 상을 받은 바 있다.) 가족과의 여행도 즐기며 세계 전역에서 은수저와 입상을 수집하고 있다.

킴볼 자매는 십대로서 어머니가 될 정도의 성인반을 가르쳤다. 대담한 면이 있어서 요리하고 가정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자녀를 기르는 법까지를 가르쳤다. 50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가족을 보살피온 이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대담한 것은 못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

아무튼 그녀의 훌륭하며 재기를 갖춘 가족은 그녀를 대변해 주고 있다. 자녀로는 스펜서 레반 킴볼, 올리브 베스 킴볼 맥, 앤드루 에어링 킴볼과 에드워드 로렌스 킴볼이 있다.

“대학교를 마치고 높은 학위를 받아 아름다운 상대를 만나 신전에서 결혼하여 훌륭한 손자 27명을 선사한 네 자녀

를 가질 수 있으니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현대 과학이 가져온 여러 가지 팔목할만한 발전과 이기에 감사해요.” 라고 캐밀과 에어링 킴볼 자매는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이 자동적으로 행복을 가져온다고는 믿지 않아요.” 지난날의 분주하고 자급자족하던 시기에도 유리한 점은 있었었습니다. 가족 야영이나 전원 지역을 방문하여 옛날의 단순했던 삶을 되찾기도 하죠. 이런 경험은 자신을 재평가하고 사치를 받아들이거나 그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마음 가짐을 갖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이란 개인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달이나 화성엘 간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인생애의 성숙한 적응으로 나오는 만족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

어머니 여러분! 그곳에 계시시요 리차드 엘. 이반스

● 얼마전 제 창문 밖 후미진 틈에 동우리를 짓고 있는 비둘기 두 마리를 보았습니다. 겨울,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니다. 먹이도 찾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미 비둘기는 그곳에 있었습니니다. 제가 손을 뻗쳐 가까이 갔을 때도 어미 비둘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니다. 어미는 두 어린 새끼가 앞에서 완전히 나올 때까지 주위의 모든 요소를 경계하며 따듯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어떻게든 먹이를 구해다 먹여주고 마침내는 그들 혼자의 힘으로 나를 수 있게 해준 것도 역시 어미였습니니다. 어미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으며 저는 그 어미의 지칠 줄 모르는 행동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어미를 충실하게 따른 동물이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에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머니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언제나 어느 곳을 막론하고 필요한 때에 한결같이 그곳에 있어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가 “어머니 어디 계시죠?”라고 물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돌보아주는 어머니를 보면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개성을 모형지어주며, 성격의 틀을 만들어주며, 미래를 인도하며 모양지어주는 분입니다. 가정을 화평과 즐거움의 장소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나누며 표준을 세워 주시며, 충고와 용기를 주시며, 더구나 자녀에게 그들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분입니다. 겸손하고 충실하며 겸허한 어머니—사랑하며 봉사하며 무언으로가

르치는—유덕하며 정숙하며 정직하며 약속을 지키고 잘못을 이해하며 매일의 의무를 수행함에 사랑과 비이기심으로 하는 어머니는 가정의 심장입니다. 가정에 있어 자녀를 기다리는 어머니는 안전과 확신의 근원입니다. 텅빈 가정 또는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집에 계시요?” “어머니 어디 계시요?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은 그곳에 계시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곳에 계시 때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그리고 언제나, 영원히 복된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제발 가정에 계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머니로서의 추억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돌 속에 있는



● 플로렌스시는 아르노 강 쪽에 위치한 투스카니의 험준한 산에 자리잡고 있었다.

어느 더운 여름날 동반자와 나는 플로렌스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시뇨리아 광장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였다.

나는 우리의 방문을 잘 기억하고 있다. 태양은 맑은 하늘의 금화인양 번쩍거렸으며 우리가 광장에 들어서자 돌을 깬 도로는 마치 큰 대리석 바둑판처럼 전개되었다. 깨끗한 조약돌이 구두밑에 부드럽게 느껴졌다.

광장은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지도, 도표, 안내서, 사진 기재를 잔뜩 멘 관광객으로 가득찼다. 화려한 광경이었다. 그들은 우뚝 솟은 예술 기념비 보다는 깊이 잠든 비둘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시원하게 뿜어대는 우리들 왼편의 큰 분수에는 남성적인 조각 바다의 신이 서 있었다. 손에 삼지창을 든 그는 관광객과 비둘기를 조용히 내려다 보고 있었다.

오른쪽 끝 그늘진 복도 밑에는 돌로 만든 갑옷이 있었다. 이에서 고대 회랍과 로마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전쟁과 신화의 장면을.

광장에는 두 예술 전시장—우피치와 시뇨리아궁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 허쿨리스 상이 있다. 이 나중 건물은 플로렌스 형식의 본보기이다. 높푸른 투스칸 하늘에 홀로 솟아있는 너무도 유명한 소박한 석탑은 플로렌스 하늘의 친근한 보초인 것이다.

그러나 이 광장을 석권하고 있는 광경은 미켈란젤로의 다윗이란 조각이다.

다윗은 순수한 카라라 대리석으로 조각한 것이다. 참으로 웅대하다. 얼굴 표정, 기묘한 명암 표시, 팔과 다리의 근육이 주는 조화의 리듬, 손과 손가락의 섬세한 표현 모두가 찬사와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거장 미켈란젤로¹는 자신의 예술적 천재의 비결을 묻는 사람에게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조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자기의 조각법은 누구보다도 단순하고 쉽고, 또한 자연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리석 조각 하나하나에는 이미 숨겨진 상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필요없는 대리석을 쪼아내어 돌 속에 있는 것을 살려준다고 했다.

다윗의 경이를 응시하고 있자니 영광에 가득찬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은 칠년전으로 되돌아 갔다. 나는 자신이 돌의 노예가 되었던 때를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듣기 전에 나는 무척 불안했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우주에 대한 답변을 부단히 구하였으나 실패였다. 결과적으로 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여 깊은 생각에 빠지길 잘하고 우울에서 헤어나질 못하였으며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했다. 만일에 하나님이 제신다면 대담조차 얻지 못한 채로 인간을 버려두

* 폴 제임스 토스카노는 1963년 3월 15일 교회 회원이 되었다. 뉴요주 오크주부 무클린에서 출생하여 이태리에 처음으로 파견된 선교사중의 일원이다. 그곳에서는 선교부 신문을 편집했다. 1970년 5월 부리감 영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1. 미켈란젤로—이태리의 조각가, 화가, 건축가, 시인, 1475~1564

지는 않으리라 생각하였다.

인간의 기원은 어느 곳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운명은 무엇인가?

인간은 이 지상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많은 사람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었주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러나 비록 확실한 답은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겠다고는 느끼고 있었다. 부모님은 언제나 떳떳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셨고 나 또한 명확한 이유는 몰랐지만 그 도덕에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곧 이것이 나에게서는 지나친 부담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이를 먹을수록 악은 나를 유혹하였고 내가 지켜온 계획을 포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나의 의도가 좋은 경우에도 이를 수행하여 의로운 삶을 계속할 힘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유혹에 여러번 사로잡혔다. 당시에는 성신이 부단히 임하지 않는 한 의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었다.

나는 실망하기 시작했다. 어디서든 대답은 얻을 수 없었고 의로운 생활을 하겠다는 나의 시도도 감당키 어려운 실패인 것 같았다. 나는 두 쪽에서 다 패한 것이다. 나는 내가 당한 패배에서 헤어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 자신의 유약과 무지의 죄인이 되고만 것이다. 나는 둘에 잡힌 사람이었다.

내가 교회와 접촉을 갖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친구 블레인이 선교사를 만나보라고 한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 미풍의 캘리포니아의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나의 집으로 향하는 길 모퉁이를 마약 돌아섰을 때 그는 벼란간 이렇게 물었다. “물론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니?”

그의 전혀 예기치 않은 이 질문은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나는 블레인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학교에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바인더에서 그 이름을 보았다. 나는 그때에야 비로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물론 교회가 하나인 것을 알았다. 나는 이웃 사람

중에 물몬이 있기는 있었으나 몇 년 전에 이사를 가 버렸다고 대답했다.

“더 알아보고 싶지 않니?”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난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바꿀 생각은 없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내가 그토록 갈구하던 해답을 찾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는 했으나 의로운 생활에서 이탈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블레인의 미소는 사라졌다. 우리 둘은 아무 말없이 얼마를 걸었다.

“내가 너의 종교를 바꾸라고 한 말은 아니었어. 다만 교회에 대하여 알고 싶지 않으냐고 물었을 뿐이지.”라고 말을 이었다. 나는 블레인의 태도에서 내게 물론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게 해야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블레인을 만난 것은 고등학교 이학년 때였는데 곧 그를 칭찬하고 존경하게 되었다. 반 동료와는 달랐다. 나는 그를 다르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그는 내가 택하기를 원하는 삶의 종류를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생기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실제로 그를 다르게 만든 것이야 무엇이든 나는 블레인을 좋아했으며, 따라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물론 선교사와의 복음 공부를 한다는데 동의하고 말았다. 그러나 결과야 정해놓은 것 아닌가? 이미 말한 바와같이 나는 바꾸지 않을 작정이었다.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무관심의 태도를 보이기로 결심했는지도 모르겠다.

마침내 선교사와 만날 날은 다가왔다. 블레인의 집 응접실에서 조그만 탁자를 사이로 나보다 한두살 위로 보이는 두 젊은이와 마주 앉게 되었다. 나는 오늘 까지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베인즈 장로와 어틀 장로. 베인즈 장로는 블레인에게 개회 기도를 부탁하였고 드디어 복음 공부는 시작되었다. 나는 선교사와 논쟁하고 싶었다. 내가 속한 교회에서 대답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물어 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장로들은 살아계신 예언자가 필요하다는 주제를 벗어나지 않았다. 나는 현대 예언자에 관하여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신회의 신비

에 대하여 토론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요셉 스미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사명, 팔레스타인의 교회 조직, 배도의 역사, 위대한 복음의 회복, 신권, 말일의 어린 선견자를 도구로 삼은 교회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였다. 여기에 요셉 스미스의 부름이 진실하며 회복된 교회가 참되다는 간증을 덧붙였다.

나는 감명을 받았으나 인정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는 바이지만, 그날 나는 상받을 만한 학생은 아니었다. 선교사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부단히 토론의 방향을 돌리려 하였다. 좀 불경한 질문도 서슴치 않았다. 논쟁을 벌렸다. 성경 지식을 겨루어보자는 식으로 덤볐다. 그러나 나로서는 불가능하였다. 첫번 모임을 마치고 나는 선교사들이 나를 침례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내 자신의 내면에는 큰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선교사들의 확신에 찬 태도와 답변의 간결, 메시지의 진리 등은 너무도 명확하여 도무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나는 들은 이야기를 물었다. 그러나 당분간은 이 사실을 숨기기로 하였다. 나는 지나친 자존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리임을 알았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로 부모님에게 내가 다른 교회에 속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 당시에는 지나가는 말로 그리 대단치 않게 취급하는 것 같았다.

그후 2년 동안을 물론 교회의 집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복음을 공부하였다. 부모님들이 교회 가입을 허락해 주실 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1963년 3월이었다. 그날 침례 승인서를 흔들며 불레인이 집 계단을 오르던 모습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들은 기뻐 부등켜 안은 채로 소리를 지르며 방안을 뛰어다녔다. 그후의 나날은 완전히 영광 속에 보냈다.

1963년 3월 15일 나는 침례탕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아 들이겠다는 성약을 하나님께 드렸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며, 위안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안을 주며, 슬픔에 잠긴 사람과 함께 슬퍼하며,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성약을 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이러한 것에 충실할 때 구속받으며 첫번째 부활에 참여하며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모사이야 18:8—9 참조)

다음 날,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

으로 확인되는 중에 “성신을 받으라”는 명을 받았다.

그 의식과 함께 나는 연약과 무지에서 해방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는 모든 질문에 답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의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게 되었다.

나는 그 이상 더 무관심의 경지에 머물 수가 없었다.

물론 죄와 무지에서의 완전한 해방은 시간을 요할 것이다. 아마 평생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완전한 해방을 즐길 날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해의 영광의 왕국²에서 해로운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싸이는 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³

7년후 이태리 파견 교회 선교사로서 밝은 태양이 내려쬐는 광장에서 서 있는 것이다. 내 개종에 얽힌 추억으로 가득차 있었다. 나는 다윗을 쳐다보며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에 관하여 한 말을 생각해 보았다. 돌에는 이미 주어진 상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들 내부에는 신의 “조각되지 않은 상”이 있다.⁴

우리는 자신을 구세주와 그의 종인 예언자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그분들은 필요없는 부분을 끌로 쪼아 내는 방법을 알려주셔 급기야는 우리 속에 잡혀있는 신성을 풀어놓아 주실 것이다.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작품을 향하여 조심스러운 꼴을 가한 것과 같이 역시 위대한 조각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돌에 새겨진 상을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노력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성공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적은 조각이나 불순물을 제거하여 버릴 때 영광의 빛의 광채와 함께 해방된 자신을 마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류, 무지, 사망의 노예가 아니며 카라라 대리석인양 깨끗하고 흰 존재로 이 세상의 불결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취는 우리의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조각화된 자신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만 조각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약에 좇아 살며 언제나 성령이 주시는 계시와 위안을 맛보아 돌 속에 잡혀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주기 위한 기도를 드릴 뿐이다. ○

2) 교회사 제1권 269페이지(교성 78:14 참조)

3)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51페이지

4) 트루먼 지. 매드센, 영원한 인간, 메저렛 출판사, 유타 쉐르브레이크시 1966년 17페이지

부 부 부천년

알빈 아이크. 다이어
십이사로 보조

● **부천년 (Millennium)**이란 단어는 천을 뜻하는 “*mile*”와 년을 뜻하는 “*annus*”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고로 부천년은 천년 동안임을 알 수 있다.

경전에서 부천년이라 언급한 기간에 관하여 간단히 고찰하여 보는 것도 흥미있으리라 생각한다.

부천년자 또는 천년 왕국설자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승천하신 후 세상에는 구세주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 동안을 다스린다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들을 부천년자 또는 천년 왕국설자라 부른다. 천년 왕국설¹로 알려진 개념은 아주 보편적인 것으로 초기 기독교에는 신봉자가 많았다. 이러한 신앙은 시편 구절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접 같을 뿐 임이니이다”(시편 90:4) 이 말은 인간의 천년이 주님의 하루와 비교된다는 뜻이다. 모세의 기록에 나타난 창조의 6일은 작업의 6,000년을 가리키며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안식과 행복의 1,000년을 말한다. 따라서 부천년은 인간의 새로운 창조에 대한 안식의 섭이 되어야 한다. 천년 왕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구절로 계시록에 나타나는 요한의 말씀을 인용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계 21:1-6 참조)

초기 유대교도들은 자기들은 부천년 동안 왕인 메시아 밑에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생각을 굳게 믿었다. 에보나이트 사람, 나사렛 사람, 고린도 사람은 모두

1. 히랍어로 천을 뜻하는 것에서 온 말.

이들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라고 생각한 몬타나 교도와 마찬가지로 부천년의 교리를 옹호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 부천년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였다. 종교 개혁은 부천년의 개념에 새로운 운동력을 가했으나 기독교 초기의 강한 힘을 되찾지 못하였다.

결여되어 있는 부천년에 대한 지식

대부분의 기독교도가 받아 들이고 있는 성전이 지상 생활에서의 “안식 기간”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경전을 오해하고 또한 기독교계의 교리에 있어서 부천년의 목적과 필요성에 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그들이 이 문제에 침묵을 지키고 있거나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이의 지식이 불완전한 소치인 것임에 틀림없다.

종교를 부인하는 사람으로도 부천년과 비슷한 것을 예상하는 예가 있다. 그들의 생각은 미래의 가능성에서 달성될 수 있는 일종의 이상향으로 물질적인 부천년을 뜻한다. 그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모든 종족은 여하한 종류의 질병과 노쇠이든 이를 근절하고 생의 체계를 따른 계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종족의 가장 좋은 요소를 부단히 증가시키므로써 종족의 발전과 재기에 착안하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개념은 부천년의 참다운 개념을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천년의 참다운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지식은 태초에 시간의 한계와 시기를 정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인간에게 알려지는 것이다.

고대 및 현대 예언자에 의한 복천년

지상 생활의 존재의 한계와 수명은 지상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 이전에 정해진 것이다. 복천년의 시기는 이 지상에 사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중에 있게 될 안식과 화평의 시기로 억압되고는 하지만 자연, 동물, 인간의 반대되는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인간은 고통과 슬픔의 운명을 벗어난다는 상태는 이 기간 동안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의 목적 설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로 마지막 지상 생활의 천년 동안은 그가 인간 사이에 이루어 놓으시는 사업 달성의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와 같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리는 복천년에는 모든 인간이 육신의 부활과 이에 따르는 영원한 존재로서 차지한 소명과 장소를 준비케 하기 위한 일이 성취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다”는 말은 복천년의 부분이 아니라고 하겠다. 우리들은 쉬운 고통스런 일이나 투쟁으로부터의 쉽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업은 이상적인 조건하에서 성취되며 모두가 열의와 영광에 찬 상태로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이지 경전을 통하여 보더라도 복천년을 보살핌이나 책임도 없고 목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축복의 시간으로만 생각하기는 힘들다.

복천년의 통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지상에서의 생명과 구원의 계획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는 육신의 존재로 있는 동안, 여러 때와 장소에서 인간에게 위임되었던 신권의 권능, 능력, 열쇠를 갖게 된다. 그리하여 육신 생활의 사업이 종결될 때까지 그는 관심을 보이며 직접 참여를 계속할 것이다 그후에 의로운 자를 대표하여 보다 훌륭한 통치를 시작할 것이다.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복천년이 가까워올 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신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그의 계속적인 영향력과 능력은 복천년의 설립에 필요한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용할 것이다.

아담—온다이—아만에서의 위대한 신권 회의

1830년 8월 펜실바니아주 하모니에서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앞으로 닥칠 시간에 관하여 언급하였는데 그 때에는 각기 특정한 시기에 자기를 위하여 봉사한 고대 선지자들과 함께 지상에 임한다고 하셨다. (교성 27:5 참조) 장소는 아담이 죽기 삼년전 자신의 의로운 자손을 한 자리에 모아 마지막 축복을 부여했던 아담—온다이—아만 계곡이다. 이는 선지자 다니엘이 본 시현에 나타난 “옛적부터 계신 이”가 좌정하실 같은 계곡이다. (단 7:9 참조) 각 경륜의 시대에 열쇠를 지녔던 선지자들 앞에는 단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구원의 열쇠를 갖고 계신 인류의 천사장에게 관리권을 다시 돌려 드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심판과 준비의 시기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사시면서 친히 천년 동안 다스리시기 때문에 아담에게 되돌려진 열쇠는 그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전달될 것이다. 따라서 신권 능력은 아들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현재 살아계신 의로운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참석할 아담—온다이—아만에서의 위대한 회의에서 주님은 지상의 통치권을 정식으로 인수받을 것이다².

권능의 이양

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될 변동은 권능이 약탈자며 기만자인 루시퍼로부터 의로운 왕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된다는 사실이다. 그곳에 모인 신권 소유자는 이 행사를 지지할 것이며 복천년을 마칠 준비의 일환으로 주님으로부터 직접 권능의 위임을 받고 필요한 지시를 들을 것이다. 이러한 모임이 개최되어도 세상은 이를 알지 못한다. 정식으로 임명된 사람만 참석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그가 모든 사람에게 재림하는 때 이전이 되며 밤에도 같이 오신다는 경전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데전 5:2)³

예언과 계시는 예수가 실제로 다스리실 복천년 이

2. 알빈 아아르. 다이어, 주님은 말씀하신다. 메저렛 출판사, 유타주 쏘트레이크시, 1964년 183—185페이지

3. 마태복음 24:43 참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사업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재하실 아담—온다이—아만에서의 회의에서 충분히 설명될 것이다. 다음의 지시가 주어질 것이다.

1.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과 영원한 성약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가문으로 헤아림을 받은 이방인에 의한 새 예루살렘 성을 건립. (니삼 21 : 22, 23 참조)

2. 야곱의 잔류민(레이맨 민족)을 위한 사업이 이때에는 열성적으로 수행됨. (니삼 21 : 23, 26참조)

3. 잃어버린 지파를 되찾아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게 한다. (니삼 20, 21 : 26 참조)

주님은 그의 전에 갑자기 임하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오시기 전에 현 미주우리주 책순군으로 알려진 지역인 시온의 중심에 건립될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타나신다는 것이다. (니삼 21 : 25) 참석을 명받은 사람 앞에 나타나심은 땅에는 화평과 인간에게는 선하심을 안겨줄 복천년의 통치를 보다 완전히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주님은 “저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내려오실 주니라. (교성 133 : 2)

그리스도께서 복천년의 통치를 준비하는 시기에 시온의 성도는 전과는 다른 시험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오실 때 그를 마지할 수 있는가의 합당성을 시험 받는다.

악인의 멸망

멸망의 도구 : 복천년 이전의 시기에 있을 불의한 자, 악한 자의 멸망은 인간 자신으로부터 온다. 그들의 불순종과 성신의 능력으로 인간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할 의로운 율법은 지구 문명의 부패한 붕괴의 주원인이 될 것이다.

나타날 명확한 구분 : 예언, 비유 또는 직접 계시에 나타난 바와같이 이 지상의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사업이 최고조에 달할 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옳은 자와 그른 자,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구별이 명확해 진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각 부분이 일반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인간의 지상에서의 존재 말년에

규정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구분되며 루시퍼가 이끄는 지옥의 무리와 천사장이 인도하는 악의 군대 사이에 최종적인 결전이 벌어질 것이다. (교성 88 : 111-115 참조)

루시퍼의 구속 : 악한 자의 멸망과 함께 지상에 사는 인간 잔류민은 의로운 가운데 살며 사탄도 그들을 지배할 능력이 없게 된다. 따라서 사탄 또는 루시퍼는 묶이게 된다. 인간이 사탄의 속임수나 유혹에 말려들지 않기 때문에 그의 능력은 헛된 것이다. 사탄의 묶임과 동시에 일곱번째의 천년에 관한 사업, 즉 창조의 안식은 계속될 것이다.

세상에 생길 두개의 수도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을 세계적인 정부를 준비할 때 의로운 자 또는 악한 자의 멸망 후에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의 영광스러운 왕국 또는 정부에 속한다. 이 기간 동안에 성취될 위업에 협조하는 사람 중에서 더 의로운 자는 세상의 나라에서 나아와 시온의 자녀라 불리우는 유다 민족의 후손과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후손 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위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장자가 되었으며 이 집합의 부름에 첫번째로 응할 에브라임 족속이 주동이 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후손을 위한 새 예루살렘 즉 시온에 모일 것이다. 섬 또는 대륙이 하나가 되므로 땅은 나뉘이기 이전처럼 4 되며 따라서 옛날의 예루살렘 성과 지역적으로 미대륙의 중심부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감소될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교회와 동의어인 하나님의 왕국은 성신권과 열쇠의 회복과 때를 같이하여 능력의 행사로 이 지상에 건립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아담에게 성신권이 부여된 때로부터 이 지상에 여러 번 세워졌다. 이때를 경륜의 시대라 부른다. 가장 위대한 마지막 경륜, 때가 결정에 이른 경륜⁵의 시기가 지상에 온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또

4. 교리와 성 133 : 22-34 참조

창세기 10 : 25 참조

5. 엠1 : 10 교성 112 : 30 참조

는 하나님의 왕국은 지상에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왕국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표본으로 보여주신 주기도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⁶ 지상에 하늘 왕국을 세우는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교회와 그에 속한 나라를 포함한 하늘 왕국은 승리의 왕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구속하신 세상을 친히 통치하려 하늘 무리를 이끌고 오실 때 능력과 위대한 영광 가운데 세워진다.

우리가 아는 바와같이 하늘 왕국에는 교회회원 이외의 사람도 포함한다. 인간 중에서 존경할만하고 정직한 사람은 보호를 받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정부의 완전한 조직하의 시민이 될 특권을 부여받는다. 이는 그들이 교회 회원이거나 아니거나 그들이 받을 몫인 것이다⁷.

복천년 동안에 복음을 온전히 받아 들이고 교회와 관계를 갖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복천년 통치 이전에 살다가 죽은 선조, 말하자면 영육에서 대리 의식을 기다리고 있는 친족을 위하여 성 신권을 받아 행사할 권능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의 재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개조 10조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을 다스린다.”는 신념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 영감에 가득찬 말은 아버지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녀와 함께 지구를 다스리러 오실 아들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주님께 올 정부의 통치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말을 하셨다.

자신의 때에 세상의 모든 일을 규제하고 우주의 머리의 위치에서 자신의 손으로 정부를 통치하게 한다는 것이 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여호와의 계획이었으며 현재로는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끝날 때

심판은 의로운 가운데 수행되며 무질서와 혼란은 자취를 감출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할” 것이다. (사2:4) 모든 혼란이 존재해 온 것은 이러한 통치 원리가 없기 때문이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 하니이다”(렘 10:23)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보아왔다⁸.

족장, 예언자는 주님과 함께 음

예녹과 그의 성스러운 성에 살던 사람, 족장, 예언자, 사도는 이 위엄과 영광에 가득찬 재림에 주와 함께 올 것이다. 절정의 시기의 십이사도와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주의 ‘면전에서 차지할 위치에 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눅 22:30)⁹ 이와 같은 복천년에서의 지명은 자기의 백성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주님 자신이 선택한 12 니파이 사도에게도 주어졌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인자의 얼굴을 보리라”는 약속을 받았다¹⁰. 예언자는 말하기를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구세주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알리라”고 하셨던 것이다¹¹. 또한 예언자는 다른 때에 “내가 지상에서……요셉 자신과 모로나이, 일라이어스, 엘리야와 다른 선지자와 함께 포도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리니”라는 약속을 받았다¹².

따라서 우리들은 의로운 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여 성도라 불리우기에 합당한 자, 지상에 살다 죽은 다음 변형된 자 또는 부활한 자, 영의 세계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자, 그가 오실 때 지상에 살고 있는 자들은 “눈 깜박하는 사이에”(교성 101:31) 부활로 변화되어 구름 속에서 그를 맞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그의 재림이 갖는 위대성, 놀라운 능력, 그리고 웅대함은 계시, 시현 또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태초로부터 선량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이 영광스런 행사를 알게 된 선지자의 설명으로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

8. 교회 기록역사 제5권 63페이지

9. 마태복음 19:28참조

10. 교성 130:15

11. 교성 130:1

12. 교성 27:5-12참조

6. 마 6:10

7. 제임스 이. 탈메지, 신앙개조의 연구 1924 368페이지

놀라운 약속



마거리 에스. 캐논

● “그럴 수가 있을까?”

노인 시므온은 방금 성전에 들어온 부부를 조심스럽게 쳐다보았다. 남자는 새장을 들고 있었다. 안에는 어린 비둘기 두 마리가 들어있었다. 이는 희생의 제물로 사용될 것이었다. 이는 율법이었으므로 누구도 잘 알고 있다. 여자는 아주 젊었고 한 6주쯤 지난 아기를 팔에 안고 있었다. 대개 그때쯤 되면 아기는 성전에서 결례를 받아야 했다. 이 또한 율법이었다.

시므온은 희고 긴 수염을 쓰다듬었다. 그 아기에는 무엇인가 다른 게 있었던 것이다.

“그럴 수가 있을까?”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노인 시므온의 마음 속에는 흥분이 일기 시작했다. 그는 것처럼 오랜 동안을 기다려 왔던 것이다. 아마도 오늘이 바로 기다리던 그날인지도 모르겠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시므온이 죽기 전에 구세주 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세상의 어느 것 보다는 이를 바랬으며 기도하였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이지만 시므온은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는 자기에게 알려진 약속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 부부에게 가보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꼈으며 오늘도 성전에 오고 싶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시므온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아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노인은 물었다.

젊은 여인은 미소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기를 앞으로 내밀었다.

시므온은 숨을 죽이고 아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기쁜 감정이 샘솟기 시작했던 것이다. 약속은 실현된 것이다.

경건한 태도로 노인은 아기를 팔에 안았다. 감사의 눈물이 뺨을 흘러내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를 드렸다.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대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누가복음 2:29-32)

마리아는 아기에 대한 말을 기이하게 여겼다. 한 동안 젊은 어머니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구세주를 뜻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

아마존 강변의 성탄 전야

● 열살난 요한나 헐가는 긴 금발의 머리채를 뒤로 젖히며 눈물을 참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녀는 어머니와 동생 줄리아나와 함께 성탄 전야를 같이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한나는 이 신나는 일을 그만두고 장굴 속으로 이 십리나 떨어진 곳까지 당나귀 세리느를 몰고 가 세노라 루바도스 할머니를 모시고 오기는 정말로 싫었다. 오늘 밤에 오시는 손님 중에 근처에 사는 사람이 있어 그녀를 데리고 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존의 장글가에 잘 지은 집에 감도는 냄새는 향기롭게 코를 찌르는 것이었다. 엄마는 특별한 요리와 갈익힌 파이와 갖은 양념을 다한 생선과 새우 등을 만지셨다. 역시 맛있는 양념을 넣은 살진 닭 여섯 마리가 이미 불을 떼어 적당히 더워진 둥근 벽돌 아궁이

헤이즐 스완슨 글
카펜 포스트 그림

에 들어갈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자, 요한나야 이제 그만 그치렴” 어머니는 오늘 아침에 깨끗하게 치워놓은 마루를 분주히 다니시면서 유쾌한 음성으로 말했다. “참다운 성탄절의 정신이란 사랑의 정신을 나눈다는거야. 넌 세노라 루바도스 할머니가 이런 날 오막살이에서 혼자 지냈으면 좋겠니?”

“그렇지만 세 시간이나 걸릴텐데. 게다가 세리느도 가길 싫어해요. 길에 뱀이나 없나요? 보나마나 늦을테구 그러면 재미있는 건 하나두 못본단 말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흔들었다. “쫄쫄. 세링게리오*의 아이가 되기란 그리 쉬운 게 아냐. 너희 아버지는 나무에서 고무를 따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지?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 심지어는 필요할 때의 일까지도 말이야. 더구나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일 때에는 더욱 그렇지.”

사실 그 때에 요한나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판에 담긴 과자를 꺼내보고 싶었고 줄리아나와 함께 알버트 아저씨가 뉴욕에서 보내주신 이상하게 생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놀고 싶었다.

줄리아나는 자기 가족의 가장 값진 재산의 하나인 아름다운 아기 침대를 만지고 있었다. 백년 이상을 전해 내려온 가보였다. 홀란드에서 전쟁이 끝났을 때 가져온 유일한 재산이었다. 이곳 밀림에서 태어난 두 여자 아이도 언제나 이 보잘 것 없는 것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었으며 부모님이 들려주는 고향에 관한 이야

*세링게리오는 부라질의 고무 수집가



기를 실감나게 해준다고 생각해왔다. 성탄절에 스케이트를 타던 눈과 얼음의 들판을 상상만 해보라! 그러나 이곳 밀림에서도 소나기를 제외하고는 다룰 게 없다.

요한나는 휘파람을 불며 세리느를 물었다. 세리느는 붉은 색을 칠한 나무 마차를 몰고 고무나무 사이로 난 꼬불꼬불한 길을 잘 따라갔다. 요한나는 심부름을 기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옳았다. 세노라 루바도스 할머니께서 이 성탄절을 혼자 보낸다니 좋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전에는 많던 아이들이 전부 해안 도시로 이사를 하지 않았던가! 사실 요한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즐거운 새들이 머리 위를 날랐고 머리에 달락달락하게 내려온 나무의 속삭임 속에서 밀림 동물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두 시간을 더 가서야 세노라 루바도스 자신이 집이라고 부르는 방 한칸의 오두막집에 도착하였다. 어두운 피부의 할머니는 척추 병을 앓아 허리는 다른 사람보다 두배나 더 굽었다. 그녀는 활짝 열린 문에서 기다렸다. 예리한 갈색 눈동자는 따뜻한 감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요한나는 서둘러 마차 뒤에 갖가지 색의 담요로 폭신한 자리를 만들어 드렸다.

“어서 타세요. 빨리 집으로 가셔야죠.” 요한나는 행복한 목소리로 외쳤다. 잘만가면 해지기 전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채 십오분도 안되어 겨울철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아이 참, 어떻게냐? 할머니, 담요를 꼭쓰고 계세요. 아직도 한참 가야해요.” 요한나는 말했다.

“지나가는 소나기야.” 할머니는 요한나를 안심시키려는 듯이 말했다. 요한나도 그렇기를 바랬지만 가면 갈수록 비는 그칠 줄 몰랐다. 하지만 세리느와 요한나는 비에 익숙했었다. 조금 늦기야 할테지만 별 지장은 없을 것이다.

모든게 순조롭게 진행되어 갈 때였는데 큰 새 한마리가 나무에서 날라 내려왔다. 세리느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마차는 진창길을 벗어나 젖은 나무 앞으로 더할 나위없이 미끄러운 길을 달리다 전복하고 말았다. 바퀴 하나는 풀 속으로 덩굴러 들어갔다. 세노라 루바도스와 요한나는 담요와 젖은 나무 앞으로 범벅이 된 채였다.

요한나는 몸을 떨치고 일어나려다 말고 외쳤다.

“아유 다리야!”

진흙길 한 가운데서 일어나려고 애쓰던 루바도스도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 집으로 다시 가야겠구나. 다리를 좀 붙들어 매야겠다. 자 내 몸에 기대보려무나!”

요한나는 다시 몸을 바로 세우려다 움추렸다. 소용 없는 일이었다. 세노라 루바도스의 집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성탄 전야 모임에 참석 못하겠구나!”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얼굴을 흐르는 눈물은 빗방울처럼 빠르게 떨어졌다.

“오늘이 너의 집에서 성탄 전야라면 내 집에서도 성탄 전야지! 누구든 자기에게 알맞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오두막 집에 도착하였다. 세리느는 훌륭한 모임에 모시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것이 두 사람 뒤를 따랐다.

“자, 침대에서 쉬고 있으면. 내 뜨거운 코코아를 끓여줄께. 불을 켜 가지고 발목을 묶어줄테니까 염려마라. 아픈 게 가실거야.”

요한나가 코코아를 마시고 있는 동안 촛불은 가볍게 흔들렸다. 방안의 보잘 것 없는 가구를 둘러볼 때 낡은 옷장 위에 아기 침대가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한테도 아기 침대가 있군요!” 할머니가 부드러운 손으로 발목을 묶어주실 때 찡그리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있구 말구. 난 성탄절 전야만 되면 저렇게 옷장 위에다 꺼내 놓지. 남편이 무릎을 새겨주었고 아이들이 칠을 해주었다. 그런데 다시 칠을 해야겠어. 모든건 그렇게 다루어야지. 광택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렇지 만 오늘 내 집에 네가 있으니 좋구나. 하늘에서 오는 축복인가 보다!”

요한나는 파티 계획이 어긋나 저으기 실망하였으나 이 마음씨 좋은 할머니로부터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아기 침대와 함께 할 사람도 없이 성탄절을 혼자 보낸다니 슬픈 일이다. 아마도 그래서 엄마는 루바도스 할머니를 모셔다 같이 지내려고 하셨나보다. 요한나는 어머니의 심부름에 선뜻 응하지 않은 것이 미안했다.

게다가 두 사람이 다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왜 다리가 아프니?” 할머니가 물었다.

요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픈 발목에 핑계를 대는 것이 훨씬 쉬었던 것이다.

별안간 털이 난 코가 방문을 열었다.

“세리느, 들어오지 마!”

요한나는 말했다.

세노라 할머니는 고삐를 잡아 밖으로 내보냈다. 세리느는 콧바람을 불며 돌아섰다. 그들은 곧 빛속에서 나는 세리느의 발굽소리를 들었다.

세노라 할머니는 요한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무서워할 것 없어, 화란 아가씨야. 이런 폭풍우는 많이 겪어보았지. 곧 지나가고 태양이 나타날 거야. 성경에서 성탄절 이야기를 읽어줄까?”

그녀는 얼마 후에 낡은 성경을 가지고 돌아왔다. 재빠른 동작으로 어느 곳을 펼치더니 읽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나시매...”(마 2:1)

세노라 할머니가 계속하여 읽자 어두운 아기 침대에 마술적인 것이 일어나는 듯 했다. 아기 예수의 그림자가 자기 주위에 모인 사람에게 믿음직한 태도로 팔을 치켜들며 미소하는 것 같았다.

예수가 태어난 곳도 이처럼 보잘 것 없는 장소였다.

그들은 폭풍우 사이로 들리는 고향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예요.”

요한나는 일어서려 하였으나 아픈 발목 때문에 도저히 앉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말로 메카도를 타고 오신 아버지였다. 줄리아나는 세리느를 타고 벌써 바퀴를 제대로 끼운 마차를 끌고 다녔다.

아버지께서 세노라 할머니를 포장을 두른 마차에 모신 다음 자기를 그 옆에 앉혀주셨다. 이제 세리느와는 싱갱이를 벌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세리느의 고삐는 아버지의 안장에 매어져 있었다.

세노라 할머니는 마디 굵은 손을 내밀어 요한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요한나, 넌 참 착한 아이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집에 가서 성탄절을 즐길 수 있게 되단다.”

요한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성탄절 전야는 세노라 루바도스 할머니와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

관리 감독단이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

배움

존 에이치. 반덴버그

● 우리가 맞는 경험은 모두가 배우는 경험이다. 월트 휘트먼*은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는 보는 것이 곧 그의 일부가 된다는 시를 쓴 적이 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은 곧 우리의 일부가 된다. 우리는 매일, 자신이 원해서가 아닌 경우에는 사고를 통해서라도 무엇인가를 배운다.

그러나 우리들 각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자기가 배울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늘날의 젊은이는 주로 텔레비에 의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조사자들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단어력을 늘린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상업 방송인 미국에서 6살부터 12살까지의 어린 아이들에게 텔레비전을 보고 배운 단어를 적어보라고 했다. 맥주 회사 광고 15개, 담배 광고 13개가 들어 있었다. 향수 광고도 여러개나 되었다.

세심한 주의력을 기울일 때 물론 텔레비전에서도 배울 것이 많지만 어린이나 사춘기의 청소년에게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종류의 광고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약 젊은이들이 매일 보고 듣는 상품이 그들을 행복과 유명으로 이끌어 준다고 믿고 있다면 이러한 배움이야말로 그들을 실망

으로 이끌어 주는 요소가 될 뿐이다. 복음에 따라 사는 훌륭한 젊은이는 이러한 환상에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우리 말일성도 젊은이들이 교육적인 면에서 기타 값있는 탐구에서 보여준 성공에 관하여 듣거나 읽는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모른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지임을 믿으며(교성 93:36)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젊은이에 기쁨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우리 젊은이가 정규 신권회와 보조 조직의 프로그램은 물론 세미나리와 종교학원을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헌신적인 형제 자매가 영감을 받아 쓴 공과를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보낸 헌신적인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교회의 젊은이는 누구든 이러한 배움의 기회를 이용하여 주기를 바란다.

여러 종류의 교회 집회에서의 이야기 부탁을 받아들이므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갖는다. 이는 인생에 있어서 자신과 성공을 위한 훌륭한 훈련이다. 자신의 감정을 자유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유리한 입장에 선다. 우리는 웅변 책임자들이 기꺼운 마음과 열성적인 태도로 젊은이의 훈련에 임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린

다. 왜냐하면 의사소통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익힐 수 있는 배움중에서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회화는 잃어버린 기술로 변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한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자기의 할 바를 다할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예를들면 저녁 상에 둘러앉아 가족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가 하루 동안에 겪었던 것 중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여 행복한 대화를 전개시킬 수 있다. 서로 다른 사람의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아울러 자유자재로 의사를 소통할 능력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가정의 밤에서 가족이 함께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의 젊은이가 성의있게 협조하고 참여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나이 어린 아이들은 열성적인 태도로 임하는 성인의 본모기를 따르게 마련이다.

종종 청소년 대회의 간증회에 참석하고는 기쁨을 느낀다. 우리는 그러한 간증이 와드 금식 모임에서 이루어질 때 부차적으로 생길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이 그러한 친숙하고 영적인 모임에서 성인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경험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매일 상대하는 사람이나 친구로부터 배운다.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복음에 더 잘 순응하는

* 월트 휘트먼, 미국 시인, 1819—1892.

법을 가르쳐주며 그들이 노력하는 중에 용기를 북돋아주며 지지하여 줄 사람과 사귀기를 희망하며 기원할 뿐이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결혼을 시작한 아이는 보는 것이 곧 그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매일 상대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운다.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배우는 학생이 아니고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강하고 현명하며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님은 가장 좋은 책에서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고 권고 하셨습니다. (교성 88:118) 독서는 더

할 나위 없는 학문의 원천이며 우리가 읽는 것이 곧 자신의 일부가 되는 것임에 비추어 읽을 것을 선택할 때에는 자유 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배워서 해야 할 일은 많은 법이다. 청소년기는 학문의 최적기이다. 미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준비할 시기이다. 결정을 해야 할 때이다. 만일에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결정을 하였으면 준비할 시간이다. 매일의 일이 만족한 상태로 이어지는 여생을 원한다면 이에 필요한 기술을 익혀야 할 시기이다. 우리는 대학이나 실업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처럼 기술 한가지씩을 배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젊은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젊은 시절은 또한 꿈을 갖는 시절이다. 그러나 꿈이 학문을 익히고 실천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신전 결혼을 꿈꾸는 사람은 그러한 결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시간이다. 훌륭한 사람의 영원한 반려자로 선택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다. 앞으로 자신의 가정을 잘 꾸려나가기를 기대한다면 지금부터 어린 자녀를 인도하는데 필요한 개성과 품성을 개발할 시간인 것이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젊은 말일성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앞으로 여러분 중에서 지도자를 구할 것이다. 부름이 왔을 때 만반의 준비를 갖춘 사람이리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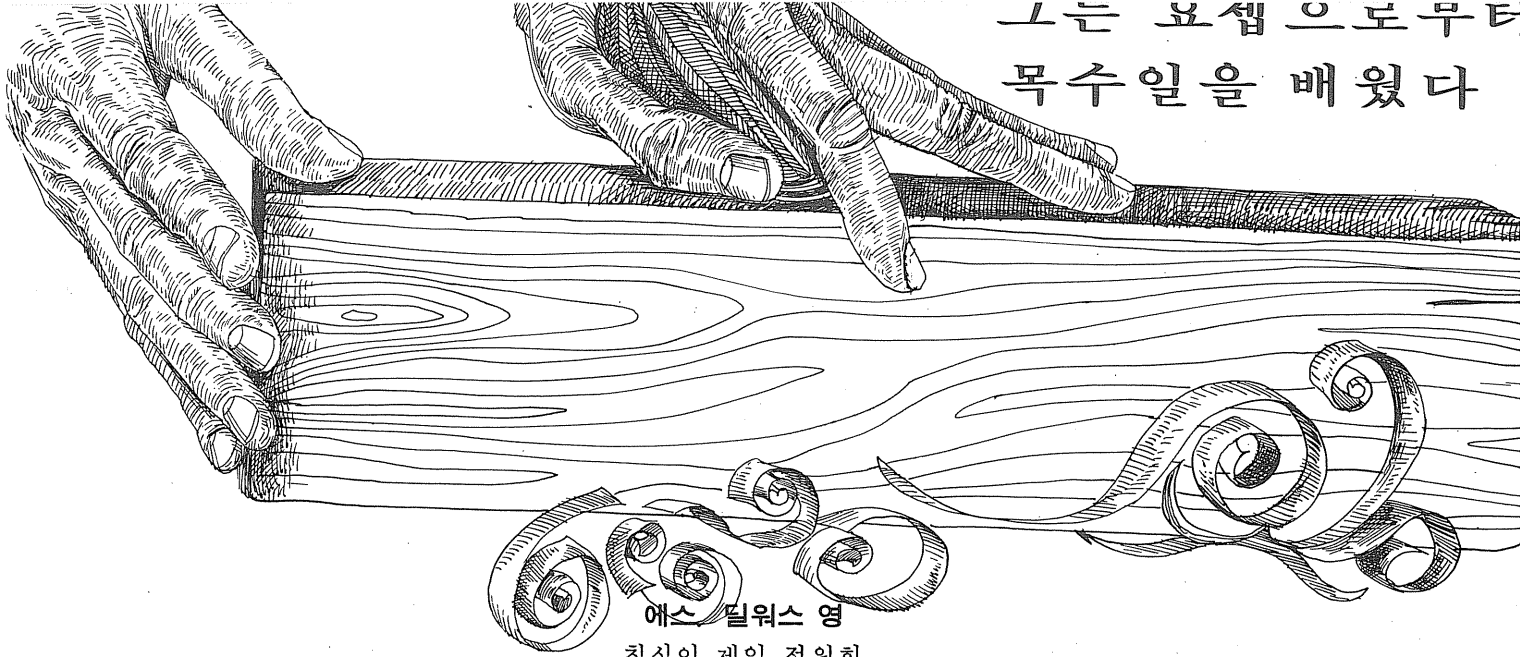
장애물을 제거함

매리온 디이. 헵크스

● 성탄절 노래나 이야기는 목자나 왕, 성스러운 아기를 경배하여 사랑의 선물을 가져온 현자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노래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아마 너무도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가 한다.

그러나 복잡한 노선과 대의가 난무하는 현대이지만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로서 이 오래된 이야기에 관한 한 꼭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이는 이 지상에 그에 관하여 아는 것은 많지 않았으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정도의 현명한 사람들을 신분의 장애와 한계를 털어버리고 그의 영 가운데 형제가 되게 한 아기가 살았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영향력 보다 바람직한 선물이나 은혜는 없다. 그러나 자기 지식의 한계성, 소유물의 일시성과 현세의 권력의 약점을 알고 자기 지위가 지니는 결립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는 사람에게 이러한 영향력은 미치는 것이다. ○



에스 디워스 영
칠십인 제일 정원회

● 성탄 절기를 맞아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준 선물을 풀면서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보자. 우리는 성장기에 처해 있다. 다가오는 어른으로의 중압감을 느낀다. 우리는 정말로 참다운 의미에서 성장함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선물은 세상의 구세주와는 그리 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지 않으셨던들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지 않을 것이다. 선물도 없고 성가도 없을 것이다. 물론 장식한 트리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에 대하여 많이 생각지 않으면서도 받는 것에만 기쁨을 느끼고는 한다.

우리는 또한 자기에게 선물한 사람에게 준 선물을 잘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받은 것이 준 것과 맞먹는가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한다. 그분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드리는 적은 선물 하나가 그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해한다. 그분들이 많은 선물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분들은 감사한다는 사랑의 표시에 만족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도 이와 같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나의 모든 것이 그가 주신 것이 아닌가? 그분도 나의 부모님들처럼 적은 선물 하나로 만족하지 않을까? 나는 어릴 때 그를 생각하였다. 그분에게도 어린 시절은 있었을 것이다.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틀림없이 알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성전의 여러 선생에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겠는가? (눅 2:49) 그는 요셉은 아니었다. 요셉은 단순한 목수였다. 게다가 그는 요셉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분이 어렸을 때에는 어떠했을까 생각하고는 한다. 분명한 것 한가지는 그분이 지상의 부모에게 순종하였다는 점이다. 그분은 요셉으로부터 목공 기술을 익혔다. 만일에 그분이 영원을 위한 본보기를 세우셨다면 분명 그것에 대한 본보기를 세우셨을 것이다. 그분은 요셉이나 마리아 보다 훨씬 현명하였다. 우월한 지식을 소유하였던지라 그들을 경멸로 내려다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라나는 젊은이로서의 그분은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부모의 말에 순종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생애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분의 희생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하여도 믿을 수는 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에 대하여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분은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였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어려서는 요셉에 순종하였던 것이다. 나도 그분의 보기를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겠다. 그런 생활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다. 이것을 내가 그분께 드리는 선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

나 자신이 귀한 선물

● 여러분 앞의 저 높은 곳에 노인 한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모양도 여러분과 비슷하고 말하는 것이나 걷는 것이 또한 비슷합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같은 코, 눈, 턱을 가지고 제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거나 증오하거나 존경하거나 경멸하거나 또는 노하거나 타협하지 않거나 아니면 비참하거나 행복하거나 간에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분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성장한 여러분입니다.” 얼마전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장차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인생이란 가는 실 위의 짧은 산보이며 이의 시작과 끝은 신비에 싸인 미지로 남아 있다. 이 좁은 선을 걸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은 균형을 유지시켜 준다.

우리가 아는 바와같이 인생은 짧은 것이나 사실에 있어서는 끝이 없다. 그리고 길거나 짧거나 간에 그것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다.”(작자불명)

삶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이지만 우리가 이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참으로 가져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 생을 떠나 다음 세상으로 가지고 갈 것은 훌륭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자혜와 공적뿐이다. 우리가 이를 매일 기억한

다면 아마도 좀더 잘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생활과 기쁨 또는 슬픔에 시달리다 보면 이 지상에서의 목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활은 유일한 배움의 길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우리가 사귀는 사람과 친숙하게 지내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는 자신의 원리에 절충의 여지를 마련해 두어 너무도 많은 세상의 방법에 쫓아 세상적인 것과 영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모든 사람을 전부 만족시키기란 불가능하며 원리를 망각하면서 까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도무지 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는다. 절충된 원리는 한마디로 굴복이며 자기 배반인 것이다.

그들은 흔히 그들 자신의 표준이 아닌 우리들 스스로가 세운 표준으로 판단한다. 즉 우리가 믿는 바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원리를 저버릴 때 우리는 타인에게 실망과 환멸을 안겨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유대를 갖는 방법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믿는 바를 행하고, 되어야 한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며, 남을 존경하고 남의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고 타협적인 원리로 자신을 배반하지 않는 길이다.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을 내러서는 안 된다. 또한 자기 보다 조금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하여 뒤지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서로 다른 생각, 재능, 능력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위대한 업적을 세웠을 때 우리는 “야 훌륭한 사람이다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하고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참다운 의미에서 위대한 사람이란 없으며 모두가 위대한 달성을 이룩한 여러분이나 나처럼 평범한 것이다. 물론 그들의 업적을 치하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열심이 노력할 때 자신의 분야에서 의미있는 업적을 이룰 수 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자신을 제어하여 목적을 설정한 다음 이에 이르면 자기는 최선을 다했노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발전하는데 따라서 목표를 높이 정한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공만 하면 행복해 진다고 자신을 타 이르는 사람도 있다. 행복이란 때로는 우리가 성공이라 부르는 것과 혼동되고 있다.

성공은 모든 것을 조금 더 갖는 것도 아니며 그대로 오거나 얻어지는 것은 더욱 아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원하고 그 원하던 것을 얻을 때 온다. 우리가 옳은 장소에 있으면서 원할 때 오는 것이다.

행복하지 않으면서 성공했다고는 하지 않으며, 반대로 고결, 일, 사랑, 자존심,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복하다고 하지도 않는다.

랜디 스웬슨, 17세

가고 오고 또 얻는 것이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우리는 곤란, 공포,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을 이겨 나갈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안되겠다. 두려움이나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게 해서 는 안된다.

로버트 푸로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인생에 대하여 배운 것을 단 세마디로 집약할 수 있다: 인생은 가고 있다 는 것이다.……중요한 사실로 기억해야 할 점은 두려움이나 걱정은 방향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삶은 계속된다.”

삶은 계속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지금 이곳에서 맞아야 한다. 만사가 우리가 원하는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포자기해서는 안되며 좋아하지도 않는 것을 위하여 언제나 뛰어나서도 안된다. 곧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달음질할 기운이 없어지기에 그렇다.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와 마주하여 경외하며 즐기며 이에 적응하여야 하며, 우리가 좋아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바를 다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신앙을 갖고 능력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참으로 우리의 미래는 그에 달려있다.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이반스 형제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 자신인 것이다. 우리는 곧 자신의 선물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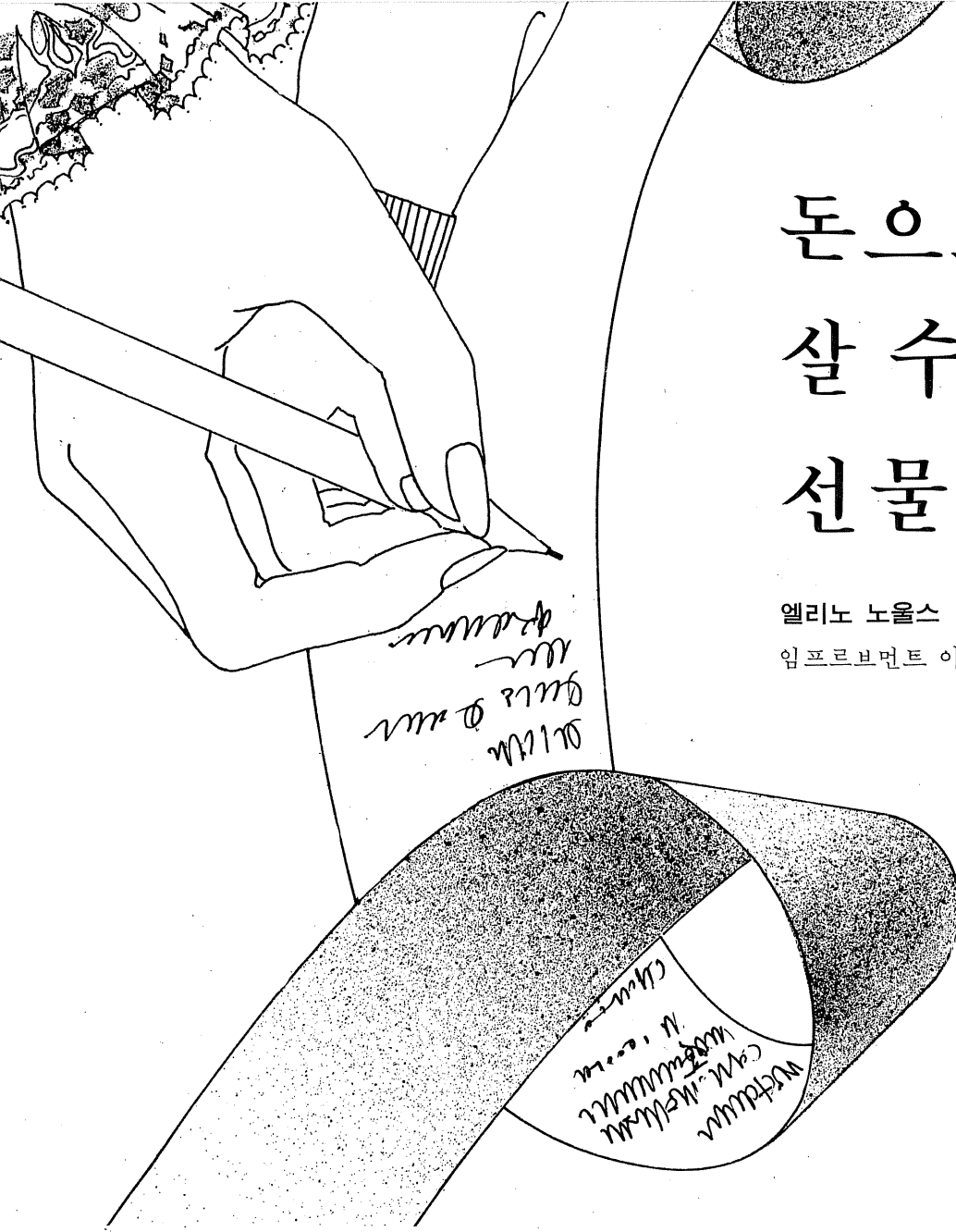


*로버트 푸로스트—미국 시인 1874~1963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

엘리노 노울스

임프르브먼트 이라 부편집장



● “헤롯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야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야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야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마태복음 2:1-2, 9-11)

위의 아름다운 구절은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다는 아름다운 전통의 시초가 되지 않은가 한다.

매스 미디어와 광고가 소용돌이치며 비교적 풍요로운 삶은 영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현 사회에서의 선물은 다분히 상업적인 면으로 흐르고 말았다. 물론 선물을 준비할 때에 받을 사람을 염두에 두고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는 참으로 훌륭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물해야 할 사람의 욕구를 채워줄 때 주는 사람 또한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 참으로 마음에서 울어나서 주는 사람의 비상한 관심을 표현하는 선물이 될 때 그 기쁨은 한층 큰 것이다. 흔히 그러한 선물은 실제 경비는 크게 나지 않으나 가장 귀중한 재산인 시간의 지출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말로 마음에서 솟아나는 참다운 선물인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린 자녀 넷을 둔 어머니는 이 아이들이 어떤 선물을 아파에게 주면 그를 성탄절 때만이 아니고 일년 내내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표시가 될까를 놓고 궁리하였다. 그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아파를 가정에서 위할 일의 내용과 그 방법을 의논하였다. 직장에서 돌아오시면 신문을 갖다 드리는 일, 좋아하시는 후식을 마련하거나 신발을 닦는 일 등이 있었다. 어머니는 이웃 가게에서 폭넓은 테이프를 사다가 365일에 대한 표시를 하였다. 매일 그들이 아버지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과 이를 말할 아이를 적어 넣었다. 매월 그 달의 선물 계획표를 가족 게시판에 붙여 각자의 책임을 환기시켜 주었다. 이러한 선물은 일년동안 계속되는 참다운 선물이라 하겠다.

용돈이 없는 대학생 하나는 선물 확인표같은 것을 만들었다. 표 위에 한해 동안에 자기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 해 주고 싶은 내용을 적었다. 같은 방 친구에게는 무도회에 입고 나갈 옷을 만져준다고 약속했다. 이런 아이가 있는 이웃분들에게는 며칠 동안 아기를 보아주겠다고 약속했으며 연노한 아주머니에게는 급한 심부름을 다니겠다고 제의했다.

이같은 선물 확인표는 도화지나 제도용지 또는 흰 카드, 금색 또는 은색 잉크, 제도용 펜, 그림 삽화, 시나 인용구, 리본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다. 시간 선물로는 미술, 음악, 요리, 어학 그밖에 유익한 것을 가르쳐주는 봉사들을 들 수 있다. 노인이나 불구자를 위해서 운전을 해준다거나 집에서 만든 빵이나 과자 또는 그밖의 음식을 선물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방학을 이용하여 친척이나 이웃이 집을 떠나 있을 때 정원 가꾸기, 우편 선물 등을 정리하여

주는 선물도 값진 것이다.

바쁜 부모라면 자녀의 관심사에 몰두할 시간을 약속하는 “시간 카드”를 줄 수도 있다.

가족에게 의미 심장한 뜻을 내포한 선물로는 가족의 기억의 책이나 스크랩북을 들 수 있다. 어느 젊은 여성은 가족역사와 기록서를 타자하여 이를 자기 형제자매에게 준 적도 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하지만 다음에 올 성탄절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웃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도 마음의 선물로는 효과적이다. 어떤 말일성도 가족은 펜실바니아주로 이사한 후로 교회 회원과 멀리 떨어져 지내야 했던 적이 있다. 그들은 성탄 전야에 집에서 만든 과자를 예쁜 종이와 리본으로 포장하여 이웃 집에 돌렸다. 이러한 성탄절의 접촉을 시작으로 그들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그중 몇은 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하는데 이르렀다. 또 주로 십대로 구성된 가정에서는 성탄절에 때는 장작을 준비하여 성가를 부르면서 나누어주는 전통이 있었다.

어느 도시에서 상향회 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가족과 떨어져 있는 젊은이들을 초대하여 요양원, 병원 또는 성탄절에 외로움이 깃드는 장소를 골라 성가를 부르도록 하였다. 그들은 소방서 근처에서 그들을 반기는 청중을 마지할 수 있었다.

실제 돈으로는 얼마 들지 않으나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손수 만든 선물은 언제나 환영을 받는다. 상상력을 총동원한 상자나 포장은 평범한 빵 한덩어리나 과자 한봉치라도 시각과 미각을 돌구는 구실을 하기에 충분하다. ○

주일학교

1월 주일학교 성찬식 전 후주곡

Slowly Melvin W. Dunn

1월 주일학교 성찬식 성문 봉독

1월 주일학교 연습 찬송

장년 주일학교

유년 주일학교

장년 주일학교

유년 주일학교

제 101장

제 50장

야보고서 4장 8절

마태복음 22장 39절

“시온의 모든 아들이아” “기도는 영혼의 소망”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윌리엄 엠. 데일*

● 희랍 신화에 의하면 헤르쿨레스—희랍 신화의 최대의 영웅은 젊었을 때 산의 목동과 함께 산 적이 있었다. 어느날 그는 한낮의 더위 속에서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자기가 따라가던 길이 벼랑간 두 길로 나뉘는 것이었다. 그는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몰랐다. 한 길은 매우 평탄하여 가기에 좋아 보였다. 즐거운 도시로 이르는 길 같았다. 또 다른 길은 험난한 산길로 오르기에 힘도 들것 같았고 게다가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험하여져 결국은 구름 속에 가리워 온데 간데 없어지는 길과도 같았다.

헤르쿨레스는 위에 묘사한 두 길에 대하여 과연 어떤 길로 가야 될까를 망설이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도시로부터 평탄한 길을 따라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가 입은 옷은 색색 실로 수놓은 꽃으로 덮혀 있었고 머리에는 장미관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헤르쿨레스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도시로 이르는 평탄한 길을 택하라고 일러주었다. “도시에 가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주는 너그러운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일은 할 필요도 없고 상쾌한 정원에 앉아 샘솟는 소리와 새의 노래를 들으며 보낼 수도 있으며 좋아하신다면 거문고의 선율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헤르쿨레스는 도시쪽을 바라보았다. 음악 소리가 아침 미풍을 타고 은은하게 들려왔다. 나무와 꽃으로 집을 둘러싼 정원은 보기에도 시원하여 이 여자의 충고

에 따라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의 뒤를 잡아다니는 무엇이 있었다. 그 때에 다른 길에 서있는 역시 젊은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눈은 슬픈듯 하였으나 용기에 넘쳐 있었다. “헤르쿨레스씨, 사실을 말씀드리겠어요. 제 동생이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시에서 당신께 주는 그 즐거운 것들은 가치도 없는 것이고, 일단 받으면 당신은 꿈에서도 원치 않는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 도시로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산길로 가십시오. 산길은 올라가기 힘들어요. 올라가면 갈수록 힘은 더들게 되요. 그러나 당신은 절대로 지치지 않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산 공기를 마음껏 들여마실 수 있어요. 이 공기를 마시고 산을 오르면 건강해집니다. 높이 오를 용기만 있다면 이 산길은 당신을 올림프스 산으로 안내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그곳에서 죽지 않는 신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꿈 속에서의 헤르쿨레스는 현명하여 산길을 택했다. 그가 후자를 택한 것은 나중에 에우리스테우스—미케네왕의 아들—가 명한 열 두가지 어려운 일은 수행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헤르쿨레스의 선택은 그의 개성과 일치하는 것이다. 고대 희랍인에게는 올림프스산에서 신과 함께 살 특권을 갖는다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목표로 생각하였다. 헤르쿨레스는 아무 쓸데없는 것을 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교상한 목적을 성취하겠다는 약속이 두 여인중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를 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헤르쿨레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둘째 여자가 그의 행복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녀는 아주 어려운 길,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길을 가라고 했다. 그녀는 헤르쿨레스에게 상을 줄 수는 없었다. 상은 노력하여 얻는 것이다. 쉬운 길은

* 윌리엄 엠. 데일은 유타 대학에서 사회사업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유타 제2지구 소년원 집행 유예관으로 봉직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와 정신 위생을 취급하는 사회 단체의 회원으로 캠프원 프로그램 개발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1949년 뉴질랜드에서 선교사업을 마쳤으며 감독을 지낸 바 있다. 세벽 세미나리의 교사와 윌포드 스테이크 임페리얼 제2와 드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리벳트 바루스와 결혼하여 다섯 자녀를 두고 있다.

순간적으로 마음을 끌었으나 그는 둘째를 택했다. 그의 선택은 그가 자신에 대하여 품고 있던 존경심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둘째 여자의 충고에서 자기 인식, 발전, 성취, 궁극적으로는 신이 되는 길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그녀는 진정으로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때에는 반드시 “이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자문하여 보아야 한다. 내가 성공하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실패와 악의 동반자를 구하는가? 내가 주님의 율법을 버리기를 바라는가? 부모와 가족이 낫을 못들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는가? 언제나 중요하게 간직해 왔던 원리에 회의를 품게 하는데서 기쁨을 찾지는 않는가? 그는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의 목적이 우리가 세운 목적과 일치하는 사람이다.

위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학생이 필요로 하는 바를 채워주는 커녕 자신의 목적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교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우리는 생활하는 중에 자신의 미심쩍은 길을 가르치려는 사람과 잦은 접촉을 갖게 된다. 불행하게도 젊은이의 단순한 신앙을 파괴하고 불만의 씨를 뿌리면서 최대의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 우리의 학교를 배움의 터전이라고 부르는 사실로 미루어 미숙하고 호기심에 가득찬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활동할 수 있는 곳을 알 수 있다.

학생은 선생을 믿으려 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학교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릇된 이데올로기를 배척할 권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은 자기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선생님이 심어주려는 태도, 선택, 또는 철학에 관하여는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에 대하여 알맞은 가장 훌륭한 답변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거든 너희를 가르치는 자나……되게 하지 말라.”(모사이야서 23:14)

천국 회의에서 한사람도 잃지 않겠다는 약속의 계

획이 제시되었다. 헤르쿨레스의 꿈에 나타난 상징적인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지상에서는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다. 노력이나 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치루어야 할 대가도 편리한대로 무시할 수 있다.

둘째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선택의 권리를 주며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설명하고 보여주기는 하나 그를 따르는 문제에 대하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길이 어렵기는 하여도 성공한 사람은 영생을 부여받으며 사실에 있어서 신이 되는 것이다. 둘째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선택의 권리이다.

“……인간들이 타락에서 구속될 것임에 영원토록 자유로울 것이요, 선과 악을 알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마지막 큰 날에 있을 형벌의 법을 제하고는 스스로 행동하며 강요되지 아니 하느니라.

그러므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유로우며 만물이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느니라. 인간은 만민을 위하여 마련된 크신 중보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악마의 권세와 속박에 매어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느니라. 이제 악마가 속박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만민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함이라.”(니파이이서 2:26, 27)

하나님이 되는 산정에 오르는데 꼭 필요한 도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 행하는 계획”이다. 신뢰하여야 할 사람중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자신인 것이다. 우리들 모두는 성스러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나 영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을 합당하게 조절하여야 한다. 이 점에 관하여 부리감 영 대관장은 훌륭한 견해를 피력하셨다.

여러분의 신앙이 합당한 목적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신념이 흔들리지 않으며 생활이 깨끗하고 성스러우며, 신권이나 여러분에게 맡겨진 역량에 따라 주어지는 부름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여러분은 성신으로 충만한 것이며, 것이 강한 바람에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과 같이 누구도 여러분을 속여 멸망으로 이끌지는 못할 것입니다.”* ○

* 설교집 제7권 277페이지

데이비드 오. 맥케이

오늘날의 당신을

● 이 땅의 성일 가운데에 성탄절은 거의 모든 나라가 인정하여 축하하고 있습니다. 철모르는 어린 아이나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로부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관심을 불러 넣어주는 고유한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년중 이기심이 자취를 감추며 친절, 용서, 인내와 사랑의 마음을 듬뿍 갖겠다는 소망을 갖게하는 절기입니다. 이 같이 단순한 덕성이 이날을 그토록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 주는 요소입니다.

기독교 세계의 모든 도시의 성탄 전야는 인간이 만든 찬란한 등으로 장식됩니다. 그러나 이천여 년 전 베들레헴의 성탄 전야는 여기 저기 보이는 햇불밖에는 없는 어두운 저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하였지만 역사적인 고장에서 첫번 성탄의 이야기가 울려퍼졌으며 세상의 빛이(요 9:12) 육신의 삶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첫번 성탄의 알림은 어느 이야기 보다는 감미로운 것이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영원한 원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은 세상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베들레헴 아기의 탄생에 관한 내용은 이 사실을 아름답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행에 지칠 대로 지친 요셉과 마리아는 정든 베들레헴의 조그마한 마을에 들어가면서 안락한 거처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막의 방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 주막을 나와서 다시 어두움을 헤매며 잠자리를 구하려 했을 때 마리아가 느꼈던 실망과 두려움에 가득찬 걱정이 어땠으리라는 것을 어머니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위는 혼잡하였으나 도와줄 친구나 그들의 무거운 고독감을 덜어줄 낯익은 얼굴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들어갈 가장 좋고 안락한 자리가 있어야할 집, 아니 앉아 쉴 침상 하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별의 나타남으로 이를 알게된 겸손한 목동들은 마리아와 아기가 구유에 누어있는 것을 보았

위하여

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보여지는 길을 따라 그분에게 인도되었습니다. 8일 후 모세의 율법에 좇아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성전을 찾았을 때 시므온은 그가 “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번 성탄절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열심이 구하는 모든 사람—겸허한 사람, 학식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위대한 사람—은 그를 찾을 것이며 성스러운 형제애로 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세주이시며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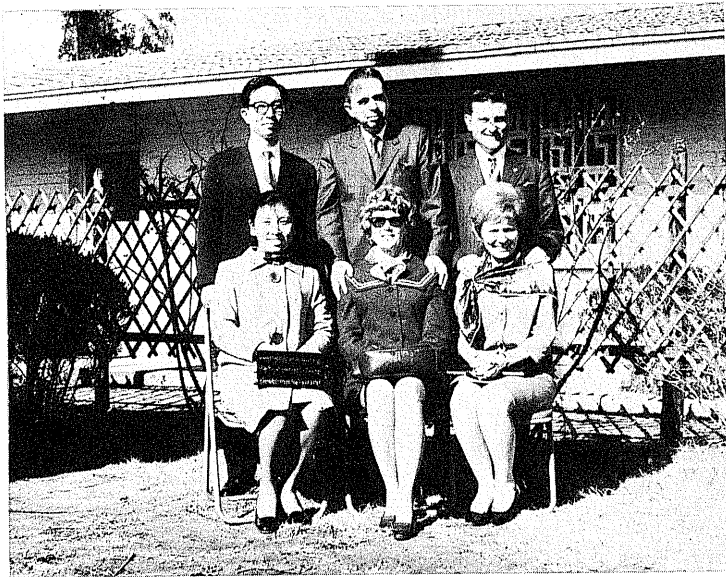
구원은 참다운 의미에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우리는 모두 개인과 더불어 일하는 것입니다. 신앙, 회개, 침례, 안수례, 기타 모든 복음의 원리와 의식은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성탄절의 참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수세기를 두고 빛을 발하여 온 말씀은 그의 탄생을 알리는 하늘의 음성이었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께서 초라한 아기로 오셨을 때에는 머물 방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가정에서는 그분을 모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기심, 질투, 증오, 그리고 불행을 자초하는 모든 것은 친절, 봉사의 념, 선의로 바뀔 것입니다.

세상에 화평을 이룩할 책임은 나라를 통합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 가정, 촌락, 도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 속에 참다운 성탄절 정신을 심도록 힘써야 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모일 때 진정한 기독교 도시가 성립되며 이러한 도시가 모일 때 참다운 기독교 세계가 조성되는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

약 2,000년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베들레헴의 밤은 어두웠으나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세상은 밝은 빛으로 빛났습니다. 참으로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곧 살아졌읍니다. 교만한 인간들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고 기뻐했읍니다. 지난 2,000년간 인간들은 무한한 물질과 과학의 발전을 갖어 왔읍니다. 비행기를 발명하고 로켓트를 이용하여 달에까지 여행을 했읍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있는 주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것인지요? 형제의 사랑은 얼마나 발전했읍니까? 세상은 많은 분쟁과 전쟁으로 형제를 죽였고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나의 형제를 달아 못을 치고 있지는 않읍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님이 오신 그 위대한 뜻을 되새기며 사랑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빕니다.

한국 선교부장단

선교부장 서 현 보
제1보좌 이 호 남
제2보좌 윌리암 오. 위티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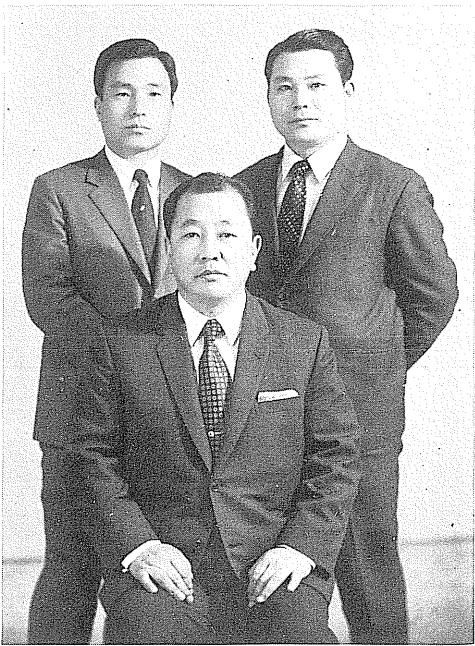
■ 호남 지방부장단 ■

믿음 소망 사랑의
생활을 축원합니다

호남지방부

지방부장 이 재수
제1보좌 박 병규
제2보좌 김 종택
서 기 정 병주

■ 남부 지방부장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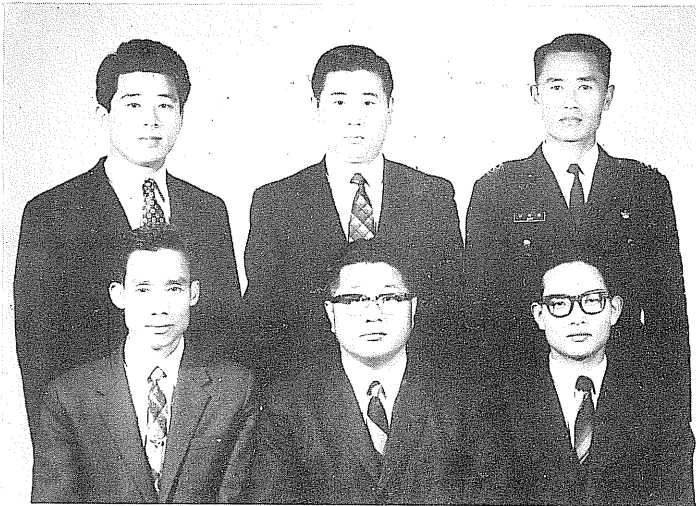


“우리는 모두 선교사”라는
 멕케이 대관장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부지방부

지방부장 배 영천
 제1보좌 배 수열
 서 기기 방 춘성

■ 동중앙 지방부장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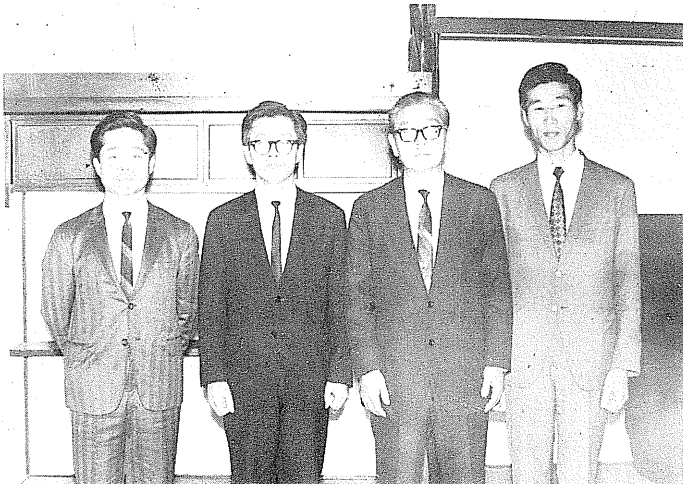


신전사업을 준비하는
 축복받는 생활을
 바랍니다.

동중앙 지방부

지방부장 박 재암
 제1보좌 이 민관
 제2보좌 주 덕영
 서 기 손 승은, 송 정섭
 서 현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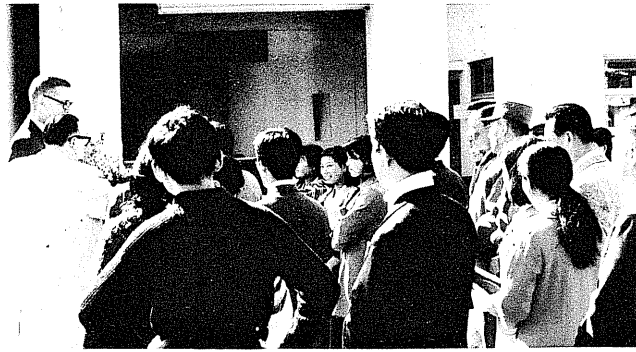
■ 서중앙 지방부장단 ■



가정의 밤을 통해서
 더욱 축복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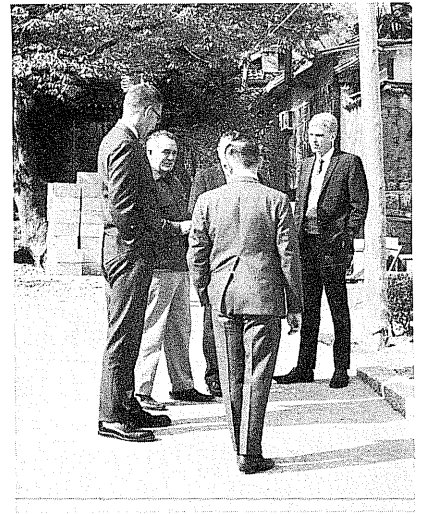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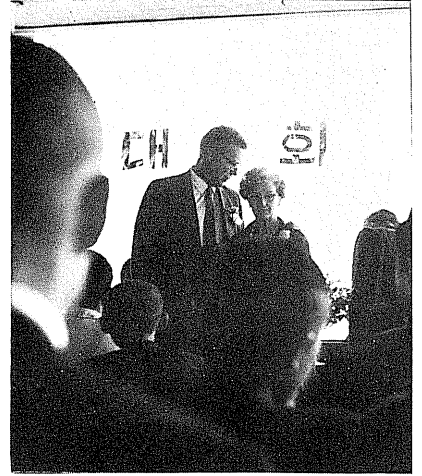
서중앙지방부

지방부장 김 종균
 제1보좌 한 인상
 제2보좌 김 산
 서 기 서 원
 황 종섭



메콩키 형제 방한

교회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이며 아세아 지역담당 벤슨 사도의 보좌로 있는 부르스 아아르 메콩키 형제 내외분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1시 부산에도 착하여 그곳 성도들의 영접을 받았다. 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거의 일년만에 방문한 그는 그날 부산지부에서, 1일 호남 지방대회장인 광주지부에서, 2일 서울 동부지부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은 육신이 아닌 영이 알고 있는것이기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교회의 초보적인 교리와 신천사업과 선교사의 사명을 강조하였다. 오오스트랄리아 선교부장을 역임한 바있는 메콩키 형제와 현 대관장님의 따님인 자매는 16년전의 한국에서의 일을 대관장님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면서 그분의 사랑을 전했다. 메콩키 형제 내외분은 3일 오후 다음 목적지인 일본을 향해 떠났다.





호남 지방부 지방대회

11월 1일 메콩키 형제를 모신 가운데 열린 호남 지방대회는 광주지부에서 열렸다. 11시와 2시에 총회를 가진 광주, 전주, 대전, 군산, 목포 등지에서 참석한 258명의 성도들은 “선전사업을 통해서 받는 축복을 더욱 많은 사람이 받도록 준비하자”는 말씀을 들었다. 청소년들에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을 당부했던 그는 한국 교회의 발전은 이곳에 올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서중앙 지방부 지방대회

11월 7, 8일 양일에 걸쳐 있었던 첫번째 서중앙 지방대회에는 360여 지방부 산하의 성도들이 자리를 같이 하였었다. 가정 복음교육을 강조했던 제 1 총회와 영적인 발전을 다짐했던 제 2 총회에서 청운, 녹번, 서부, 신촌, 인천 지부의 성도들은 서부지부의 박 기생, 청운지부의 육 경남 형제를 장로로 지지하는 행사도 함께 가졌다. 대회에서는 김 중균, 한 인상, 김 산, 서 현보, 이 호남, 위티커 형제의 말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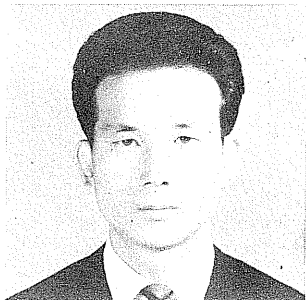


동중앙 지방부 지방대회

지난 11월 14일과 15일 동부지부에서 가진 지방대회에는 동부, 삼청, 성북, 영등포, 춘천지부의 성도 300 명이 참석하였었다. 성도들은 최 재영, 이 윤희, 김 희중 등 3명의 형제를 장로로 지지하였으며 손 승은 형제를 지방부장단 기록서기로 지지하였다. 선교부장님은 말씀에서 “우리들이 늘 계명대로 생활을 하면 그것 자체가 기도이어서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아도 늘 생활의 길을 열어 주신다.”면서 실천하는 신앙을 강조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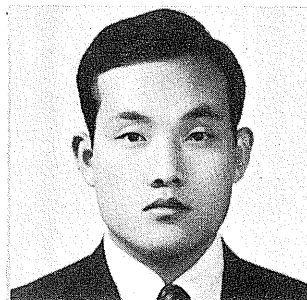
정형제 귀환

지난 68년 10월 복음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던 부산지부의 정 민호 형제가 임기를 마치고 10월 13일 귀환하였다. 영등포, 춘천, 서부 등지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던 그는 “복음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일해왔을 뿐”이라고 그간의 노고를 겸손해했다.



조형제 귀환

복음 선교사로 2년간 봉사했던 동부지부의 조 태호 형제가 지난 11월 5일 귀환하였다. 동래, 대구, 부산 등지에서 꾸준한 일군으로 모범을 보여왔던 그는 “너무도 빨리 지나버린 2년간”이었다면서 좀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한 아쉬움을 말하고 있었다.



서중앙 지방부 역원 훈련반 개최

지부장단과 지부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4일 열린 이 모임에서는 교회의 운영, 관리, 교회사, 복음원리가 다루어 지는데 이 모임은 약 10회에 걸쳐 계속된다.

마산지부 바자

지난 11월 5일 마산지부는 성향회 공과시간을 마치고 저녁식사와 바자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 지부에산을 위한 이 모임에서 한 혜자 자매는 자신의 작품 다수를 지부에 기증하여 더욱 성황을 이루게 하였다.



한자매 도일

지난 11월 7일 상명학원 33주년 기념행사를 성공리에 끝마친 바있는 동부지부의 한 미상 자매는 11월 19일 대학생 국제 친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1달 예정으로 일본으로 떠났다. 그는 상명 여자 사범대학 총학생회장으로 지난 9월 취임한 바 있다.

나는 나의 하루를 허비하지 않으리니 ……

리차드 엘. 이반스

● 잭 런던—미국의 작가 1876-1916—은 인생의 보다 충실한 이용과 연령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매우 감동적인 글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먼지가 되느니 차라리 재가 되겠다.” 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나의 불꽃을 그대로 썩어 죽어 없어지게 하느니 활활 타는 화염 속에 휩싸여 타게 하겠노라. 지지부진한 채로 영원한 위성이 되느니 차라리 위대한 섬광에 나의 모든 원자를 태워 찬란한 유성이 되겠노라.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하는 것이다. 나는 생활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나의 하루를 허비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시간을 이용할 것이다.”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 설정한 가장 빠른 시간이란 절대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독단적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의 일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나태한 채로 아니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시간만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볼 때면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는 햇수나 시간 또는 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유용한 일로 만족을 피하는 중에 최선을 다하여 일하며, 최선을 다하여 호의를 가지며, 최선을 다하여 생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경우에 과연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익한 일을 했느냐가 문제라기 보다는 마음, 정신, 판단, 경험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젊은 시절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라는 신념은 거짓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고 윌리엄 라이온 펠프스¹는 말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재미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인생의 양이 아니고 질에 대하여 생각한다.” 고 세네카²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온 생애를 자기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며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현세와 영원을 지나는 동안에 저절로 될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며,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옮겨주는 시냇물입니다. 사무엘 존슨은 “인생의 문제란 앞으로 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먼지가 되느니 차라리 재가 되겠다. 나의 불꽃을 그대로 썩어 죽어 없어지게 하느니 활활 타는 화염 속에 휩싸여 타게 하겠노라. 지지부진한 채로 영원한 위성이 되느니 차라리 위대한 나의 섬광에 나의 모든 원자를 태워 찬란한 유성이 되겠노라.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하는 것이다. 나는 생활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나의 하루를 허비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시간을 이용할 것이다.” ○

1 펠프스, 윌리엄 라이온, 미국 교육가 1865—1943

2 세네카, 루시우스 아베우스, 로마의 철학자, 정치가, 4BC—65 A D

진리의 말씀은 유명한 물론 테버나클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600키로 사이클의 서울 중앙방송국 제2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560키로 사이클의 AFKN에서도 매주일 오전 10시 5분부터 방송되고 있습니다.

1970년 12월 1일 발행 (매월 1회 1일 발행)